

703-868-7147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51호

Monday, June 24, 2024 A



"한미 기업 연결에 한인사회 발전 달렸다"

미국과 한국의 중소 기업인들의 교류 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미한 기업인 친 선포럼(AKBFF, 회장 박상근·이사장 실비아 패튼)'이 대형 포럼 및 만찬을 개최하고, 워싱턴 지역 최대 한인 경제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22일 버지니아 폴스 처치 소재 매리 엇 페어뷰 파크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는 단체 소속 임원 및 회원들을 비롯 주 미대사관 안세령 경제공사, 한국무역 협회(KITA) 제현정 미주본부장 겸 워 싱턴 지부장 등 한국 관료 및 인사들과 데이빗 켈리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 발공사 부사장, 주디 코스텔로 몽고메 리카운티특수사업국장등워싱턴지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 "워싱턴 최대 한인 경제단체 부상" 대형 포럼 및 만찬행사 성황

역 무역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또 한 AKBFF의 상부단체 격인 '한미기 업인 친선협회(KABFF)' 민선식 회장 등 임원들이 한국에서 방문참가했다.

AKBFF 박상근 회장은 "단체는 양 국 차세대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가교 및 교류의 장이 돼 한미동맹과 경제 발 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이들과 기업 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 최대 어학교육 그

룹으로 토익(TOEIC) 시험 등을 시행 하는 YBM 사의 회장이기도 한 민선 식 KABFF 민선식 회장은 "중국경사 가 심화되던 2018년 당시 미국과의 중 소기업 교류 증대를 목적으로 창설된 한미기업인협회의 뜻과 목표가 워싱턴 AKBFF의 노력으로 구체화 돼 한미 기업들의 가교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 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안세령 경제공사는 "한 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구체화되도록 대사관 및 KOTRA 등 정부기관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세용기자

>> 3면 '미한 기업인' 으로 이어집니다

한 "채상병 특검법 발의할 것" 나 "당정동행" 원 "용산 신뢰"

대표 출마, 1시간 간격 릴레이 선언 한 "제2부속실 설치 강력 요구할 것"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 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 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7.25 전당 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당 대 표 경선은 이틀 전 출마를 공식화한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4자 대결이 유력하다. 4·10 총선 참패 뒤 두 달여 잠행해 온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하며 수면 위에 나타났다. 그는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 어야할 골든타임이었다"며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 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 고 말했다. 이어 "고심 끝에 저는 오 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여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수직적 당정 관계 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 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아홉

번이나 집권당의 리더가 바뀌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과 의 관계를 "공적 관계"로 규정하며 "건강한 당정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는 걸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고, 그 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 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 했다"며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할 수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는 게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다 만, 그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 검을 지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 당이 처리를 공언한 채 상병 특검법 에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 당장 경쟁 자들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 열"(나경원), "분열은 공멸을 불러올 뿐"(원희룡), "순간 민주당 대표 출 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윤상현) 라며 반대했다. 김기정 기자

14면 '전당대회' 로 이어집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부터 가나다순)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했 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뉴스1·뉴시스]

정부 "우크라 지원 한계 없앨 것" 푸틴 '북 정밀무기 제공'에 경고

북 SRBM·장사정포 개량 땐 한국에 직접 위협 될 우려 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 한에 '초정밀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 급한 데 대해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 보실장이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 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가 (우크 라이나 무기 지원에서) 더 이상 어떤 선 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핵 관련 기술 이전은 물론, 북한이 수 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 도미사일(SRBM) 같은 재래식 무기에 러시아의 정밀 유도 기술 등을 적용해 개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 다. 실제 이들 재래식 무기는 '서울 불바 다'를 만들수 있는 만큼 정밀화할수록 위협적이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 일 KBS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러시아 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습니까. 국민 여론도 그럴 것이고"라며 "그런 부분은 러시아 측이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말했다. 이근평 기자

>> 2면 '레드라인' 으로 이어집니다









571.623.0255

Annandale



703.988.0033 MENN 301.792.5615 H-Mart 4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443-759-9798

구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MARKS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m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영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u>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u> 건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SUPER LAWYERS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Rated AV-PREEMINENT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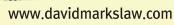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한국어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용산 "우크라 제공무기 조합 달라질 것" "러와 수싸움 나섰다

푸틴에 레드라인 경고한 정부

푸틴 "북에 초정밀무기 공급할수도" 용산 "살상·비살상 여러 무기 가능" 러기술접목땐대남정밀타격가능 "3축 체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수도"

》 1면 '레드라인'에서 이어집니다

앞서 푸틴은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재 검토'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초정 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

장 실장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는 살상 무 기든, 비살상 무기든 굉장히 여러 단계 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 오느냐에 따라 우 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무기 지원의 조 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러시아가 선을 넘을 경우 우크라이 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에 제한을 두 지 않겠다는 취지다.

중동에서 'K방산'을 이끄는 중거 리 지대공미사일 '천궁-II' 같은 최신 예 방공무기는 물론 1~2m에 불과한 타 격 오차 범위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 (KTSSM) 등 한국이 보유한 정밀 무기 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일 수 있다. 한국 이 타협 불가한 '레드라인'(임계선)은 위성이나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전략 무기 기술 이전보다도 훨씬 가까운 곳 에 그어져 있는 셈이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도 "러 측이 하기 나름"이라며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거나 제재받는 상황이

아니게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 하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북한이 통제가 안 되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인 데,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 러시아에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러시아가 고 려해야한다"고도말했다.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느라 여력이 없는 러시아가 선을 넘지 못하 도록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20일 즉각적 으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검 토'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다.

이에 푸틴 역시 말로 응수했지만 초 정밀 무기에 대한 추가적 설명은 공개 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첨단 무기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군 안팎에선 북한 의 기존 재래식 무기에 초정밀 관련 기 술이 적용될지 주목한다. 러시아가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 사일(ICBM) 등 '게임 체인저'급 첨단 무기를 지원하는 게 전 세계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과는 별개로 남한을 노리는 다양한 재래식 무기 기술의 급 진전이 한국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600mm 초대형방사포(KN-25)로 이 뤄진 북한의 'SRBM 3종 세트'에 러시 아의 초정밀 유도 기술이 적용될 가능 성을 정부는 우려한다. 북한은 전술핵 탑재를 염두에 두고 대남용으로 3종 세 트를 개발했다. 해당 미사일에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광학 유도 기술 이 적용되면 정확도가 크게 높아진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 교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는 디지털





'떠다니는 군사기지' 미 핵항모 루스벨트함 첫 한국 입항 미 해군 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t급)'이 지난 22일 오 전 부산시 남구 해군 작전기지로 입항하고 있다. 길이 300m, 축구장 3배 면적 의 비행갑판을 갖춘 루스벨트함은 이달 말 열리는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 련인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국내에 들어왔다. 작은 사진 은 이날 열린 항공모함 공개 행사에서 제2격납고에 있는 FA-18(수퍼호넷) 전 투기 모습. 송봉근 기자

영상대조항법(DSMAC) 기술로 표적 의 영상정보를 종말 단계에서 대조해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SRBM은 DSMAC 기술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위성항법체 계등을통한유도기능을갖춘것으로 파악된다. DSMAC가 적용되면 목표 물 타격 오차 범위를 30~50m에서 10m 미만으로줄일 수 있다고 한다.

관련 기술이 순항미사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목표 건물의 창문도 맞힐 수 있을 만큼 정밀성을 핵심으로 하는 순항미사일에 러시아 기술을 접목한다면 북한은 한국 을 상대로 '정밀 타격(surgical strike)' 이 가능해진다. 북한이 러시아의 초정 밀 유도 기술을 240mm 방사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당 방사 포는 "서울불바다"를 위협할 때마다 꺼 내는 북한 장사정포의 주력이다.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을 치르는 러시 아 입장에선 이런 재래식 무기 기술을 전수해 북한을 '군수 공장화'하는 게 이득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진다. 동시에 북한은 보유 무기의 실전 능력 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등 3축 체계 전반을 다 시 들여다봐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한·미·일, 주중 첫 '프리덤 에너지' 북한은 당 전원회의서 반발할 듯

미 "북·러 결속에 대한 대응 아냐"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주 한·미·일이 최 초의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 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실시한다. 북한이 주민들에

회의를 앞두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 목된다.

한·미·일 국방 수장은 지난 2일 아시 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올여 름 프리덤 에지를 처음 실시하기로 했 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 다영역 훈련의 틀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훈련은 한 게 상반기 성과들 결산 선선하는 선원 - 반노 수변 공해상에서 이뤄실 것이라고 - 이번 수 개죄될 당 선원회의에서 북 러 -

한다. 미국 제9 항모 강습단의 크리스토 퍼 알렉산더 단장(준장)은 이날 공개 행 사에서 "이미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정례 적·일상적인 훈련"이라며 "북·러 결속 에 대한 대응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이 강력히 반발할 여 지는 충분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동맹 체결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 워야 하는 시점에 한·미·일의 연합훈련 이 찬물을 끼얹는게 될 수 있다.

반발 차원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북·러 정상회 담 직후 대남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여 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전날 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 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같은 날 발간 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 무력에 이어 러·북동맹의 결성을 통해 '이중 안전장 치'를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 정책 전환의 체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 공세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1월 미국 대선 직전을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는

워싱턴 날씨 (°F) 25일(화) 92~76 🌣

28일(금) 88~73 🍎 6월 24일(월) 89~69 27일(목) 90~69 🌣 30일(일) 92~73

① 위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센터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이곳 571-225-5342(직통) / 571-486-0909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한인 2세 대상 북한인권 교육한다

북한 자유 위한 한인교회연합 써머 미션 및 인턴쉽 컨퍼런스 개최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이하 KCC)이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워 싱턴DC에서 써머 미션 및 인턴쉽 컨퍼 런스를 개최한다.

KCC는 지난 2004년부터 탈북자 구 출 및 북한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 개해온 비영리 단체다. 컨퍼런스는 코 로나 팬데믹 시기 잠시 중단된 것을 제 외하고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미국 전역의 한인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국인이자 기독교인으 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 핏줄인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직시해 자 신의 삶을 이웃과 세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리더쉽 배양을 목적으로 하 고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해 온 수잔 솔 티 디펜스 포럼 대표는 "올해는 과거와 달리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다 공세적 인 자세를 취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크 게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전쟁을 불사한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권과 같은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한국총선이 끝나고



샘킴 사무총장이 써머미션 및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북 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탈북을 방해하 며 도발을 강화하는 현 시점이 매우 중 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 시점에 KCC가 7월에 모여 미국을 상대로 위 험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경각심을 불 러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밝혔다.

올해 행사에는 영국 의회 내 북한 관 련 초당파 모임인 APPG NK의 티모시 조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이 단체는 탈 북민의 자립을 돕고 북한 실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한 영국 의원 모임으 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물론 한반도 긴 장을 초래하는 문제 등에 천착해 논의 를 진행해 오고 있다.

조국장은 함경북도 온성에서 태어나 일명 '꽃제비'로 살아온 탈북민 출신으 로, 영국에 정착한 후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피오나 부르스 하원의원 보 좌관을 지냈다. 그는 유엔 본부를 비롯 해 30여개국에 초빙받아 북한인권 상 황을 고발하고 있다. KCC 측은 조국 장의 연설이 한인 2세들에게 북한 실상 과 분단 현실을 깨우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연방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루어지며, 참가 인턴들은 대통령 봉사상 자격과 참가 횟수 및 봉사 시간에 따라 금, 은, 동상을 받게 된다. 김윤미 기자

"DMV, 한국기업 진출에 최적"

» 1면 '미한 기업인' 에서 이어집니다

KITA 제현정 미주본부장은 "조 지아, 알라바마, 텍사스 등 미국 전 역에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첨 단 분야와 관련된 한국 대기업 및 관계 업체들의 진출이 급속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인 현 상황에서, 양국 기업들 의 파트너쉽이 긴밀해지고, 정부정 책 및 시행 법규 등 제반사항 등 환 경이 개선되면 중소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진단

한편이날행사에서는 '한미혁신 생태계의 지름길: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2회에 걸쳐 진행 됐다. 박제 한 나우젠 회장이 진행자로 나선 첫 번째 포럼에서 데이빗 켈리 페어팩 스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부사장은 "카운티 내에 현재 68개의 한국 기 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는 단일 국 가로는 세계 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학군 좋고 한인 사회도 잘



발달된 이곳에 보다 많은 한국 기 업들이 미국 진출의 발판 삼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주디 코스텔로 몽고메리 카운티 특수사업 국장은 "세계 3위 유전공학 분야 클러스트 인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여 러 면에서 최고의 바이오 스타트업 업체들을 위한 '실리콘 밸리'"라고 설명했다.

"수많은 한국 인재들이 NIH 등 정부,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 며, 혁신 기업의 창업을 위해 카운티 정부가 최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고 말했다. 두 번째 포럼에는 승경호 리얼티 원 그룹 슈나이더 팀 대표, 새미 김 회계변호사, 강병조 변호사 가 나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운영 지원'을 설명했다.

박세용 기자



오하이오 대형 열차 탈선사고로 VA·MD 등 오염 돼

지난 2023년 2월 3일,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열차탈선사고로 인해 유독물질 이 다량 방출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16개주를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빗 게이 하버드대학 교수 연구진 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 지역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뉴잉글 랜드 지역은 물론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니아까지 번져갔다. 피 해지역 면적은 54만스퀘어마일로, 미 국영토의 14%에 이른다.

게이 교수는 "먼 곳읗로흩어진 유독 물질은 당장 사망 등을 유발하는 수준 은 아니지만, 건강에 매우 유해한 수준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열차 탈선으로 유독물질을 싣 은 화물객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열 차의 길이는 총약 1.76 마일(2.80킬로미 터)에 달했는데 총 141대의 적재된 화 물객차 중 20대 가량의 화물객차에는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클로로에 탄(염화비닐), 부틸아크릴산, 2-에틸헥 실아크릴산,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에테르, 이소부틸렌(C4H8), 벤젠, 기타 가연성 유독 화학물질이 운반되고 있 었다. 탈선으로 인해 유독물질을 싣은 객차 11량을 포함해 49량이 뒤엉키고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은 워싱턴 지역과 가까운 오 하이오-펜실베이니아 접경 지역이었

다. 전문가들은 사고당시 대처가 미흡 해 엄청난 환경재앙을 초래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당시 당국에서는 대규모폭 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열차에 남아 있던 다른 화학물질을 모두 현장에서 소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이같은 고의 화재로 인해 측정이 불가 능할정도로많은유독가스와매연이발 생했다. 사고 현장 근처 호수에서는 화 재와 동시에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나 타났다. 주민들은 아직도 두통과 만성 기침, 발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화물 운송회사는 운송비 절감을 목적으로 허용된 중량 이상을 과적했 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지난 주말 '폭염 주의보'까지

연방기상청(NWS)가 지난 주말 워싱 턴 메트로 지역에 최고 등급의 폭염주 의보를 발령했다.

NWS는 특히 23일에는 4개 폭염 주 의보 등급 중 가장 높은 4단계 등급을 발령했다. 22일에는 낮최고기온 100도 를 기록했고, 한때 체감기온은 110도에 육박했다. 4단계 등급은 온도 등 기본 환경만으로도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당국에서는 6월 날씨로는 매우 이례 적으로 앞으로도 10일 이상 낮최고기 온이 90도 이상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

당국에서는 일광시간대에 야외활동 을 자제하고 노약자는 반드시 냉방시설 을잘 갖춘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Dental Implant





🛭 교정 및 물리치료 703-691-3111

척추신경전문의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센터빌 **703.543.2322** ₩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아칸소 식료품점서 총격…3명 사망·경찰 등 10명 부상

목격자들 "폭죽 터지는 소리" "산탄총 들고 매장 들어와"

21일 아칸소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총격 이 발생해 13명의 사상자를 냈다.

AP통신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아칸소주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께 아칸소 남부 도시 포다이스의 식료 품가게 '매드 버처'에서 벌어진 총격으 로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 혔다. 총격범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다쳤으며 현재 구금된 상태 다. 총격범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수 준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총격범이 쏜 총에 맞은 부상자 중에 는 경찰관 2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총격범이나 피해자들의 신원 을 비롯해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 직 공개하지 않았다.

식료품점의 육류 관리자인 매슈 길 은 CNN 인터뷰에서 "한 남성이 산탄



21일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아칸소주 식료품점

총을 들고 매장에 들어와 총을 쐈고 경 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끝났다"고 말했 다. 이 식료품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하는 시의원 로더릭 로저스는 자신의 식당 직원들이 총격이 일어났다고 알 려줘 즉시 카운티 보안관에게 전화로

신고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로저스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 들이 사방으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했 다고말했다

아미야 도허티는 이 식료품점 주차장 에서 차 안에 있다가 폭죽이 터지는 듯

한 소리를 들었고,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쏘는 것을 보고서는 밖에서 보이지 않 게 아래쪽으로 몸을 숨겼다고 지역방 송사 KATV에 말했다.

온라인 SNS에 게시된 영상에는 1명 이 식료품점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모 습이 담겼다.

다른 목격자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58)도 식료품점 인근 주유소에 들렀다 가 갑자기 폭죽이 터지는 듯한 소리를 몇 차례 들었다고 AP에 말했다.

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모습 과 한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사람들이 해당 식료품점

포다이스는 아칸소주 대표 도시 리 틀록에서 남쪽으로 104km 떨어진 인구 약 3천200명의 작은 도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는 이날 오후 엑스(X, 옛 트위터)에 올 린 글에서 "포다이스에서 벌어진 비극

적인 총격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생 명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고 영웅적인 조처를 해준 법 집행 당국에 감사하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겠 다"고밝혔다.

근래 몇 년간 미국 식료품점에서 발 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는 2022년 5월 뉴욕주 버펄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가 흑인 밀집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총 격을 가해 10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 치게 한 사건과, 2021년 3월 콜로라도주 볼더의 식료품점에서 시리아계 이주민 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사건 등

미국의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 브(GVA)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 지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는 이날 아칸소 사건을 포함해 234건에 달한다.

이 단체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 상이 총에 맞아 다치거나 숨진 사건을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정해 집계한다.

비명 듣고 돌진, 성폭행범 잡은 한인 태권 가족

텍사스서 남성제압, 17세 소녀구해 가족5명단수합하면 '태권도27단'

텍사스주에서 한인 태권도 가족이 성 폭행당할 뻔한 10대 소녀를 구해 화제 가되고 있다.

텍사스 휴스턴 일대 치안을 책임지 는 해리스 카운티 보안관 에드 곤살레 스는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그룹의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범죄 피해자를 구하러 돌진했다"며 휴 스턴 외곽의 '용인 태권도' 관장 안한주 (59)씨가족을 소개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안씨 가족은 태권도장 옆에 있는 상점에서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



텍사스에서 성폭행범을 태권도로 제압한 안한주(가운데)씨 가족.

[사진 X 캡처]

곧장 현장으로 달려간 이들은 17세 여성 점원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알렉 스로빈슨(19)을 제압하고 피해 여성을

안한주 관장은 태권도 8단에 합기도 6단, 부인 안홍연(55)씨는 태권도 4단이

며, 딸 현정(22)씨와 두 아들 형빈(20). 성훈(18)씨는 각각 태권도 5단이다. 이 사건은 텍사스의 여러 지역 방송사는 물론,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도 20일 보도됐다.

현예슬 기자

71세 미스유니버스 USA '역대 최고령' 참가

미인 선발대회인 미스 유니버스 USA

22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1 일 힐튼 휴스턴 쏘스트 오크 호텔에서 개막한 미스 텍사스 USA 선발대회에 71세의 마리사 테이요 (사진)씨가 참가

100명의 '젊은' 여성들과 미스 텍사스 자리를 두고 당당하게 경쟁한다.



버스 USA 역대 최

지난해까지 미스

회부터는 전격적으로 이를 폐지하면 서 테이요 씨는 참가할 수 있었다.

결혼한 여성은 물론, 임신하거나 이

시엘파소(El Paso) 출신으로 평소 운 등 응원의 댓글이 잇따랐다.

동과 댄스 등으로 건강 관리를 해왔다. 가족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여성들이 육체 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 해 노력하고, (나의 참가로) 모든 연령 에는 18~28세까지 대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도록 영감 을줄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

이어 "당신의 꿈을 좇기에 (지금도) 결코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며 자신의 꿈을 좇는 것에 대해 이보다 더 의욕적으로 느낀 적이 없다 고 자랑스러워했다. 테이요 씨의 인스 테이요 씨는 텍사스 서부에 있는 도 타그램에는 "당신에게 투표하겠다"는

'버킨백' …사자마자 되팔면 가격 2배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의 유명 가방인 '버킨백(사진)'을 둘러싼 일반 적이지 않은 경제 법칙이 고객과 매 장 직원 간의 일반적인 권력관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 널(WSJ)이 23일 보도했다.

기다리는 것을 좀처럼 인내하지 못하는 부유층 쇼핑객들도 에르메 스 매장에서만큼은 오랜 기간 대기 하는 것을 감내한다고 이 매체는 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 킨백의 기본모델인 검은 색 '버킨 25' 백의 매장 가격은 세전 1만1천400 달러지만, 구매자는 이 백을 구입하자마자 곧바 로 2배가 넘는 2만3천 달 러에 리셀러 업체에 념길 수있다.

프리베포터 등 주요 리셀러 업체는 가방을 매입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라스베 이거스의 팝업 매장을 통해 3만2천 달러에 판매한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희 소한 버킨백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부유층이워낙많은탓에돈많은쇼 핑객이라 할지라도 매장에서 버킨백 을 손에 넣기란 매우 복잡하고 어렵 기 때문이다.

우선 버킨백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먼저 매장의 판매 직원과 좋은 관계 를쌓아야한다.

구매자는 한 해 버킨백을 2개까지 만살수 있는데 지난해 미국 마이애 미 에르메스 점포의 한 직원은 한 고 객에게 그보다 많은 버킨백을 판매 했다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 했다.

정식 판매장에서 버킨백 하나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가방 구

> 매 후 곧바로 리셀러에 높은 값에 되파는 게 반 드시 남는 장사는 아닐 수있다.

> WSJ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에 게 지위를 상징하기에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라고 평가했다.

한편 에르메스는 버킨백이 리셀러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을 막고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 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상 황이다.

에르메스는 올해 초 버킨백 가격 을 20% 올렸는데, 당조 리셀러 업체 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과 달 리 업체들은 별다른 손해 없이 가격 인상을 고스란히 구매 고객에게 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르메스로서는 그렇다고 버킨백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쉽게 선택할 수도 없다.

에 71세 여성이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테이요 씨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약

우승하면 전국 대회인 미스 USA에 출전하게 된다. 테이요 씨는 미스 유니



고령 참가자다.

유니버스 선발대회 나이 제한이 있었 다. 그러나 올해 대

혼한 여성도 참가할 수 있다.





척추 한방 클리닉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종합 △ △

"대학졸업시자동으로 영주권줘야"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

이민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 온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사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대학을 졸 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올인 팟캐 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2 년제 대학을 포함해 (미국내)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그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 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은 "누구든 2년제 또 는 4년제 대학을 졸 업하거나 학위를 받

으면이 나라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부연했다.

영주권은 외국인이 본국 국적을 유지 한 채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하며 취 업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 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그간 강경한 이민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왔지만 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기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 령이 언급한 외국인에 미국에 불법 입 국하거나 비자에 근거한 합법적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까지 포함되는 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수퍼달러' 독주에 신흥국 신음한다

고공 질주하는 '수퍼 달러'가 신흥국과 아시아 외환시장을 강타했다. 신흥국 화폐가치는 줄줄이 급락했다. 중국 위 안화와 일본 엔화가 맥을 못 추면서 원 화값도 '1달러=1400원 선'을 위협한다.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는 미국 홀로 피 벗(통화정책 변화) 시기를 미루면서 주 요국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다.

'수퍼 달러'에 다시 불이 붙었다. 월 스트리트저널(WS)에 따르면 유로·일 본 엔·스위스 프랑 등 세계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 스(1973=100)는 지난 21일(현지시간) 105.83으로 5월 초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높다.

가장 큰 불씨는 유럽중앙은행(ECB) 과 캐나다은행, 스위스국립은행(SNB)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앞서 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다. SNB 는 3월에 이어 지난 20일(현지시간) 깜 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달 리 미국은 탄탄한 경제와 들썩이는 물 가에 기준금리 인하 출발선에조차 서 지 못했다. 미국의 장기화되는 5%대 (5.25~5%) 긴축 여파로 주요국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 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사그라지지 않는 수퍼 달러에 기초 체력이 약한 신흥국 통화부터 직격탄 을 맞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 르면 22일(현지시간) 기준 JP모건의 신



흥국 외환지수가 연초 이후 4.4% 하락 했다. 2020년 이후 4년여 만에 최대 낙 폭이다. 멕시칸 페소(달러당 18.10페 소)는 21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6.9% 폭락했다. 미국 고금리에 과거 금리가 낮은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 신흥국에 투자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철수 영 향이다.

이날 일본 엔화도 한때 두 달여 만 에 '1달러=159엔' 선을 넘어섰다. 연초 이후 달러 대비 13.4% 급락한 '수퍼 엔 저'다. 엔과 위안화가 동시에 미끄러 지자 한국 외환시장도 긴박하게 움직 였다. 지난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화값이 장 초반 달러당 1390원을 뚫고 1400원대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를 500억 달러로 1년여 만에 150억 달러 증액하며 대응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 액에서 빌려 쓰는 한도를 늘려준 셈이 다. 이후 원화값은 상승세가 진정되면 서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3.6원(환율상 승) 하락한 1388.3원에 마감했다.

미국이 확실하게 '피벗 깜빡이'를 켜 는 게 관건이다. 다만 탄탄한 미국 경 제에 전문가들의 최근 9월 피벗 전망 도 오락가락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준 비제도(Fed)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 할확률은한국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 기준 59.5%다. 일주일 전(14일) 62%보 다 낮아졌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26일 워싱턴DC서 개최

2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반도체·바이오등협력논의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오는 26 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사진) 장 관이 오는 24~28일 워싱턴DC를 방문 해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한미 공급 망·산업대화 등에 참석한다고 23일 밝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3 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산 업장관회의 정례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첫 회의에는 안 장관과 지나 러 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해 역내 경제안보 및 산업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사가 열린다.



확장하기 위해 경제 단체 주도로 '한미일 재계회의'가 발족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 미 기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을 비

롯한 미국의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인 사들을 만나 한미 양국 간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제2차 한미 공급 망·산업대화(SCCD)를 개최, 양국 간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실 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한미 SCCD 반도체 포럼, 한 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청정에너 지 비즈니스 포럼 등 한미 기업들의 비 즈니스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

엔비디아 "AI칩 규격, 우리가 결정"

데이터센터 서버 규격 놓고 갈등 CEO까지 개입, 양보없는 신경전

인공지능(AI) 시대의 최고 기업 자리 를 두고 경쟁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엔비디아가 AI 데이터센터 서

AI 기술 헤게모니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비디 아와 MS는 이달 내내 전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접전 중이 다. AI 무대의 주인공 자리 경쟁은 당 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버 규격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 포메이션은 지난 18일 다수의 소식통 을 인용해 지난 몇 달 동안 엔비디아와 MS가 데이터센터 서버의 규격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를 상대로 차세대 주력 AI 칩인 '블랙웰(B200)'을 엔비디 아 독자 규격에 맞춰 서버에 설치해야 염지현기자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MS가 거부하



INVIDIA. Microsoft

면서 양사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해당 문제가 보고됐다는 것이다. 주력 사업분야가 다른 두 기업 간 충돌은 이 례적이다.

엔비디아는 자사 AI 칩이 최고의 성 능을 내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AI 칩을 단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자체 GPU(그래픽처리장치)와 CPU(중앙 처리장치) 수십 개를 이어 붙인 AI 수 퍼컴퓨터 형태로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 AI 칩 판매사가 아닌, AI 솔루 션 제공 업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반면 MS는 엔비디아가 정한 규격대 로 서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향후 엔 비디아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 있 다는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희권 기자







VA. MD. DC. NC.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ISB,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S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Mumbles: DC MUSE/201870; NUL 2018/006:14 (2018) A 1992-14 (2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H마트 건너편 위치)

지구촌 극한 날씨에 신음 미국은폭염·폭우동시에

폭염과 홍수, 산불 등이 미국을 포 함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발 생하면서 지구촌이 극한의 날씨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폭염과 함께 폭우 피 해가 잇따랐으며 중미 일부 국가에 서는 폭우와 홍수로 수십명의 사망 자가 나왔다. 유럽에서도 폭우와 폭 염, 산불 피해가 속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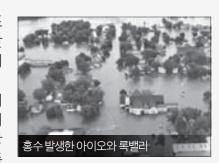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아이오와주의 록 밸리에서는 폭우 로 수백명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아이오와주에서는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겨 지붕과 나무 꼭대기만 보일정도로지난수주간비가쏟아 졌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 는 록밸리를 포함한 2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구 1만4천여명이 거주하는 아 이오와주 하워든과 스펜서에서는 폭우로 하수처리장 전기가 끊기기 도 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최대 도 시인 수폴스에 3일간 177㎜ 이상의 비가 내렸고, 수폴스에서 남동쪽으 로 48㎞ 떨어진 캔톤에는 457㎜의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로 인근 고속도로 여러 곳이 폐쇄됐다가 통행이 재개됐다. 크 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주 동남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



미네소타주에서도 폭우로 고속 도로와 지방도 등이 폐쇄됐다. 인구 4천800명의 마을 윈덤에서는 32mm 의 비가 더 내렸고 이 지역 디모인강 이 범람했다.

미국 다른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 속됐다. 기상청(NWS)은 미전역에 서 약 1천500만명이 폭염 경보, 9천 만명이 폭염 주의보의 영향을 받았 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도 크게 늘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서는 지난 20일 병원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인구 10만명당 833명 을 기록했다. 지난 17일(인구 10만명 당 57명)과 비교하면 불과 며칠 새 크게 늘어난 것이다.

중서부 지역에서도 지난 19일 응 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인구 10 만명당 62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 다고 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선토론 앞 '아킬레스건' 노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휴전 협상 공전 속에 장기화하면서 첫 대선 TV 토론에 나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 리트저널(WSJ)이 22일 진단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주자 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 는 27일 처음으로 대선 TV 토론을 한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전쟁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WSJ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백악관의 목표 달성이 점 점 더 어려워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취약성이 부 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고,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유 지하며, 레바논과 중동 다른 지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는 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8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 주도의 휴전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정정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북부 공 격이 거세지면서 양측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민 간인 사망자 추가 발생을 우려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늦추고 있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에 맞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외교 정책의 승리를 보여줘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도전인 셈이다.

가자지구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와 네타냐후 총리 에게 신속한 휴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일시적 휴전,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 스타인 수감자 교환을 하고 이어 적대 행위의 영구적 중단 등 을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휴전안을 지지한다면서도 하마스 궤멸을 위한 군사작전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종전 이후 가자지구 통치를 팔레스타 인 자치정부(PA)에 맡기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







조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네타냐후

스타인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는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제시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후 구상도 외면하 고있다.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이 전쟁에 지쳐 협상을 선호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는 만큼 빠르 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선 임연구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의 시계가 바 이든 대통령의 시계에 맞춰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또 다른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칼레드 엘진디 선임연구원은 네타냐후 총리와 신와르 모두 말로만 휴전을 지지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둘 다 가자지구 전쟁을 통해 정 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신와르가 이번 전쟁으로 가자지구 민간인 사상자가 많았지만 아랍 세계에서 하마스의 인기가 극적으로 커진 것 을 봤으며, 자국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네타냐후 총리는 평 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축출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엘진디 선임연구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휴전 회담을 영원히 질질 끄는 것 말고는 좋 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빼는 약' 열풍에 미국 내 요거트 매출 증가

미국에서 위고비, 오젬픽 등이 비만치 료제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 요거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 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업체 다논은 최근 미국에 서 고단백 저칼로리 요거트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며, 이는 위고비, 젭바운드 등 비만치료제 열풍에 일부 기인한다 고 밝혔다.

다논의 유르겐 에세르 재무담당 부 사장은 "자사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 질 요거트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카곤 유사 펩티드-1'(GLP-1) 치료를 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받고 있거나 혹은 체중이나 건강을 관 리하고자 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 가 있다"라고 말했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 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 제를 돕는다. 적은 식사로도 오랜 포 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 비만 치료 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 고있다.

다논은 비만 치료제 치료를 받는 소 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마케팅을 하 지 않았는데도 이런 매출 변화가 있었 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도 비만치 료제 치료 소비자를 겨냥한 맞춤형 제 품을 개발해 내놓고 있다.

네슬레는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투 약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섬유질과 단 백질이 풍부한 새로운 식품 라인 '바 죄근 물티나게 팔리고 있다"며 "글루 이탈 퍼슈트'(Vital Pursuit)들 줄시

> 현재 GLP-1을 투약하는 미국인은 약 3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다. 이들이 식품 섭취량을 줄이고 식 단을 바꾸는 등 많은 소비자의 소비행 태가 변하면서 소매 및 외식업계 등 다 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 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공화 전당대회서 '반란' 모의한 애리조나 대의원 교체

다음 달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모의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대선 후보 선출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극우 세력의 '내부 반란' 모의를 발견해 진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대의원 일부는 다음 달 15~18일 밀워 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달 피닉스 교외에서 모여 전당대회를 방해 할 비밀 계획을 구상했다.

미국의 대선 후보 선출은 주별로 경 선을 진행한 뒤 해당 주의 대의원이 전 당대회에 모여 경선 결과대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애리조나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 난 3월 치러진 경선에서 이겨 애리조나 에 배정된 대의원 43명을 전부 가져갔 다. 이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트럼 프전대통령에게 표를줄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닉스에서 모인 대의원 일부 는 대의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이들은 다른 주의 대의원들과 공모 하는 방안도 구상했는데 전당대회에 서 같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은 검정 재킷을 입는 아이디어를 거론하 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 반란 세력은 뜻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통 보 수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신봉하 는 공화당 내 극우 지지자라고 WP는 설명했다.

이들이 규정을 바꾸려고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지만, WP가 인터뷰한 공 화당 관료와 활농가늘은 극우 지지자 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 고받을 경우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이런 시도를 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극단주의 성향으 로 알려져 있다.

또 일부 극우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비밀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에 신세를 진 참모들이 너무 많다고 의심 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모의에 가담한 대의 원들을 신속히 교체했다. 한 캠프 관계 자는 규정 변경 시도를 "트럼프의 후보 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자 "실존적위협"이라고 묘사했다.

WP는 트럼프 캠프가 애리조나 대의 원들과 전당대회에서 어떤 방해도 없 을 것이라는 데 합의했지만, 다른 주의 대의원들이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다 는 의심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선당대회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공화당 대의원들이 후보 선출을 막으려고 하면서 혼란스 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트럼프 캠프는 경선에서 진 경쟁 후보들이 후보 선출을 방해할 가 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팬들로 대의원단을 구성해왔다고 WP는 설명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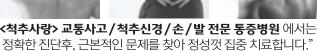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Chantilly, VA 20151

◆ 청소년 성장클리닉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MD·DC 면허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가정법 (Family Law)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입양, 가디언쉽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v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추방 방어 • 각종 비자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쇼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챈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폿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triangle SSUE 7광구, 한·일 새 협정 맺자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 7광구에 자원·협력 새 미래 있다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 해양플 랫폼에서 연신 불길이 치솟는 다. '7광구'로 불리는 제주도 남 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JDZ)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 진 곳에서다. 한 일 양국이 공동 개발 협정 발효(1978년 6월 22 일) 이후 46년째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국은 주변 해역에서 석 유와 천연가스를 스펀지처럼 빨 아들이고 있다.

현재 7광구는 시한폭탄이다. 내년 6월 22일부턴 한・일은 공동 개발 종료를 사전에 선언할 수 있다. 그러면 협정 기한(50년)이 도래하는 2028년 6월 22일부터 '무협정'의 혼돈 상태에 빠져든 다. 앞으로 1년 안에 해법을 찾 아내야 한단 얘기다.

최근 양국 전문가 사이에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을 활용해 신협정을 체결하자" 는 안이 떠오르고 있다. 1998 년 한 일이 과거사 화해와 미래 지향적 메시지를 담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 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 표하고 '신 한·일 어업협정'까지 체결했던 것처럼 '제2의 공동선 언'과 신협정을 일괄 합의하자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양국 정 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는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한

국에선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 을 파기할 것이란 불안감이 확 산돼 있다. 협정 체결 후 국제법 환경이 변해 일본이 '자국 관할' 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복수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 되는 해역에선 각국 해안선에서 등거리 원칙으로 중간선이 그 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 주 장대로라면 7광구의 경우 최대 90%까지 일본 측이 차지할 공 산이 크다.

하지만 협정 종료 시 중국의 개입이 변수다. 7광구는 한・일은 물론 중국의 EEZ도 포함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중국은 "JDZ 협정은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라며 호시탐탐 7광구를 노려왔다.

이미 일본은 이런 위협을 체 감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반 발에도 동중국해에서 공격적으 로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 본 외무성에 따르면 7광구 인근 에서 확인된 천연가스 플랫폼만 18개다. 2006년 춘샤오(春曉)를 시작으로 이미 상업생산에 들 어간 가스전도 여럿이다. 동중 국해산 가스는 중국이 국내외 에서 개발해 생산하는 천연가 스 총량의 4%(2022년, 1일 생산 량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자원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2022년 5월에 토대 설치가 확인된 한국 대륙붕 수역과 '7광구' 현황 7광구 인근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 플랫폼에서 화염이 올라오 8광구 1광구 1-3 한국 2광구 3광구 7광구 4광구 5광구 (한·일 공동 개발구역: JDZ) 한국주장 일본주장 배타적경제수역(EEZ) EEZ 한국주장대륙봉한계 중국 주장 EEZ 오키나와 해구 한·일 '7광구' 공동개발 경과

1978년 6월 22일 1974년 1월 1979~1987년 한·일대륙붕 협정 발효,

항공모함 전단은 7광구 인근 해

역을 지나 태평양으로 진출한

다. 이런 상황은 한·일뿐만 아니

라 양국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

에도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중

국이 해당 해역을 내해화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

협하는 가장 큰 잠재요소가 될

협정 파기 시 정치적 후폭풍

도무시할수없다. "영토문제처

럼 휘발성이 강한 사안" "제2의

라인야후 사태" 등 우려가 일찌

감치 쏟아진다. 윤석열 정부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개발협정

제1차 공동 탐사 50년 효력 기간 기간

제2차 공동 탐사기간 (1993년 경제성 평가 결과 양측 조광권 반납)

을 그대로 끌고 가긴 무리"라며

"한·일이 양국 국익과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신협정' 체결뿐"

"중국 견제하는 미국 끌어들여야

대미 외교에 전력"

이라고 짚었다.

단의미다.

공동 3차원 물리탐사

2002~2003년

한국 측 조광권자(한국 석유공사) 재지정, 일본 측은재지정안함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일 양국 중 일방이 협정 종료 서면 통보 가능

어 극적으로 개선된 한·일 관계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중국이 끼어들 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 면 안된다. 어떻게든 한 일 간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법이 아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기류가 닌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내 을 모은다. 박창건 국민대 일본 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활용 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제 판 하자"는 아이디어가 부상하고 례들이 일본에 유리하게 형성 있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된 측면이 있는 만큼 기존 협정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

> 내년 6월 22일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날이다. 1978년 당시 한·일 정부는 수교 기념일

> > "대중국 안보카드로 일본 설득

대통령실주도대응"

키는 차원에서 7광구 관련 신협

정을 맺자는 구상이다.

에 맞춰 공동개발 협정 비준서 를 교환하고 협정을 발효시켰 다. 그러다 보니 "잔칫날에 상을 엎지 않도록" 7광구 문제를 신 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단 지적 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양국 정상이 정치적 으로 결단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면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 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깨뜨 리는 한・일 간 갈등 요소를 원하 지 않는다. 특히 대중국 견제 차 원에서도 7광구는 전략적인 가 치가 높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 인 아미 베라 의원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 미 일 정상회 의를 앞두고 7광구 문제를 언급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베라 의원은 "우리는 동중국해에서 (한·미·일이) 공동 탐사하는 것 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미국 의 에너지업체가 함께할 수 있 는 방법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 다)"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표면에 나서지 않더라 도 한・일이 신협정을 체결하도 록 압박하는 기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외교력을 풀가동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오누키 도모코 도쿄특파원 김상진·박현주 기자

오구라 "한·일 공동개발은 전략적 의미···중국·북한에 메시지"

"한·일에너지 협력해야

대중국 압박 효과도"

강준영

"일·한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 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중국·북 한에 주는 정치적인 의미를 생 각해볼필요가 있다."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 부치 선언)과 '신(新) 한・일 어업 협정' 체결 당시 주한 일본대사 를 지낸 오구라 가즈오(小倉和 夫·85·사진) 전 대사는 지난 11 일 도쿄에서 가진 중앙일보와 의 인터뷰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복잡다단했 던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 미가 있다"면서다.

오구라 전 대사 는 재임 시절 겪

"기존 협정 유지에 최선 막후 채널 통해 교섭해야" 신각수

었던 양국 간 긴박했던 상황 을 정리한 『주한국대사 일지 1997~2000: 일·한 파트너십 선 언과 그 시대』를 이달 말 일본

> 년여 대사 재임 기간 이 두 가지 주제가 가장 표했다. 큰 외교적 과제였다는 걸 짐작하게 한다.

한·일 어업협정 은 1998년 1월 일

본 측이 파기했다. 같은 해 3월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방한해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4월부터 월 총리에 올라 김 대통령과 10월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발

이와 관련, 오구라 전 대사는 저서에서 "(오부치 외상의) 방 한은 일본이 협정 교섭을 파기 하면서 냉각된 일·한 관계를 회

복하기 위해 일본 측이 마중물 을 부은 것이었다"면서 "방한 성공의 열쇠는 양국 외무상이 노련한 정치인이었고, 보이지 않게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방한을 계기로 한 일 관 계는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고, 같은 해 4월 정상회담에서 한. 일 공동선언 작성을 위한 준비 에 합의했다. 정치적 결단과 물 밑 사전 교섭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에피소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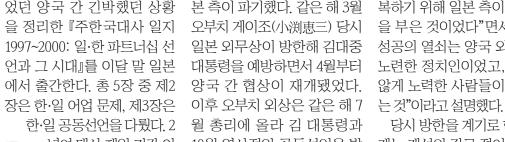
오구라 전 대사는 대륙붕 공 동개발협정과 관련해선 "어업 협정 때도 그랬지만, 일·한이 함 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일·한 양국 국민에 대해서도 제3국에 대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 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면 협정 연장 등을 통해 양국이 함께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경제적인 의미

포인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일 공동선언 체

가 어디까지 있는지가 하나의

결 당시를 떠올리며 "일·한 관 계가 조금씩 성숙한 관계로 가 는 계기가 돼 매우 의미가 있었 다"며 "한국은 과거를 극복해 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면서 과거를 극복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 의 괴리가 있다. 국민 정서를 서 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제 2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 에 대해선 "오무지-김대숭 선언 을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일·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면 의미가 있다"며 "일·한 양국 간에 그치 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나 지구 환경 문제 등에 함께 대처하는 '세계 속에서의 일·한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고 제안했다. 특별취재팀



"라인야후 전철 우려돼

한 일 재교섭해야"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



410-370-4229 · 301-275-1494



NMLS #201332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Business / Real Estate

Immi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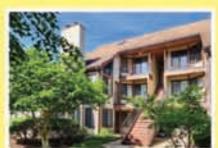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종교비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 회사설립/합병 ●국제합작투자
- 사업체 매매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부동산 투자 개발
- 부동산 매매/임대차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혼앞빌딩 3층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T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팬스.













돌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남향, 밝은 집, End unit, 1,475SF, H-Mart 가까운 동네. \$370,000









물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씨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명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703.244.6526

Hyundai di | = 54 Tel:703.813.8949, 703.813.8150~5

'미래 모빌리티 도전' 정의선 리더십 뿌리

창업자의 길과 후계자의 길은 다르다. '미친 짓'으로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드는 게 창업자라면, 후계자는 수성(守城)하는 동시에 새로운 길도 개척해야 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100년 기업'을 말하지만, 창업자 못지 않은 후계자를 키워낸 기업만이 이룰 수 있는 꿈이다. 현대 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 할아버지 정주영 선대회장의 도전정신을 손자 정의선은 새롭게 계승해 현대차그룹을 모빌 리티 혁신의 중심에 세우는 중이다. 글로벌 3위 완성차 그룹을 이끄는 정의선 리더십의 뿌리를 살펴본다.

정의선 "해보죠" 4년만에 세계 3위 '손자'병법 안엔 '할아버지' 가 있다

"할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경영자로 서 고민이 생길 때마다 묻는 질문이다. 스스 로에게 묻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과거 참모들 에게 같은 물음으로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최 근설계 변경으로 화제가 된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인 GBC(글로벌 비즈니스콤플 렉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할아버 지라면 어떻게 결정했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그의 할아버지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의 도 전정신은 그 자체로 현대차그룹의 핵심 헤리 티지(유산)이기 때문이다.

1946년 현대자동차공업사, 1947년 현대토 건사를 시작으로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 선대회장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기회를 만들 어낸 기업가였다. 1971년 조선소 사업계획서 와 울산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한 장을 들고 영국에 가 1억 달러의 차관을 따냈고, 조선 소도 없이 그리스에서 유조선 두 척을 수주 해낸 이가 정주영이었다.

정의선 회장은 2022년 고려대 졸업식 축 사에서 "제가 고려대에 진학할 때 할아버지 께서 '내가 고려대를 지었다'(본관 공사 참 여 경험)고 자랑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어떤 실수보다도 치명적인 실수 는 도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당부를 사회로 나서는 후배들에게 강조했 다. 그는 고려대 경영학과 89학번이다.

그가 회장 승진 후 먼저 챙긴 것도 현대 차의 도전 기록을 찾고 기억하는 일이었다. 2023년 5월 이탈리아 레이크 코모에서 공개 된 '포니 쿠페' 복원 프로젝트는 그런 정회 장의 의지가 드러난 대표 사례다. 미국 포드 의 자동차를 국내에서 라이센싱 생산하던 현대차는 독자 모델 개발을 목표로 이탈리 아에 전담 팀을 보내 디자인·설계·기술을 연 구했다.

그렇게 나온 스포츠카 콘셉트(시제품 격) 의 포니 쿠페는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차 오일 쇼 크(1979년)와 경기 침체 등으로 대량 생산되 지 못했고, 설계도도 사라졌었다. 정 회장은 복원된 포니 쿠페를 공개하며 "정주영 선대 회장님과 정세영 회장님, 정몽구 명예회장 님,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가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이충구 사장님도 계셨 고…"라며 할아버지 참모들의 기여를 잊지

포니 개발 주역인 이충구 전 현대차 사장 은 "내가 정 회장에게 '현대차의 헤리티지를 되살려 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회장에 대해 "신중하고 사람을 아낄 줄 아 는 스타일이고, 내가 회사 떠날 때도 가장 먼 저 전화를 해준 사람이 정의선 회장이었다" 라고 말했다. 손자 정의선은 할아버지 정주영 의 포니 쿠페를 미래차로 다시 만드는 중이 다. 현대차는 포니 쿠페의 디자인을 계승한 고성능수소차 'N 비전 74'를 준비 중이다.

정 회장은 지인들에게 "우리 파운더 (founder, 설립자 정주영)는 그 시대의 일론 머스크"라고 말하곤 한다. 자동차 산업 100 년의 역사를 뒤흔들고 경쟁의 무대를 전기차 로 옮긴 머스크는 화성 탐사 우주선도 개발 중이다. 그런 라이벌 머스크에게서, 백사장 에 조선소를 세우고 비포장도로에 국산 모델 자동차를 굴리려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 는 걸까. 그러나 그 파운더의 길과 자신의 길 이 다르다는 것을 정 회장은 잘 안다. 정 회장 을 오래 지켜본 한 기업인은 익명을 전제로 이 렇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자네, 해봤어?'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밀어붙여서 일하는 경영 자였다면, 정 회장은 참모들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그럼 해보죠'라며 사람들을 이끌고 해 야할일을 따박따박 하는 리더다."

정 회장은 할아버지의 도전 정신을 '해보 죠'로계승하고 있다. '패스트팔로워'를 넘어 자동차 산업의 변곡점에 선 현대차그룹엔 머 뭇거리는 참모들에게 '해보자' '해보라'고 길 을 열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CEO의 경 험이나 물불 가리지 않는 도전 자체보다도, 조직 내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융합하는 역 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룹 안팎에선 정 회장이 기존 사업의 개선방안, 미래 사업에 대한 제안 등을 쭉 들어본 뒤 "해보죠"라는 말로 독려한다는 일화가 많다. 현대차그룹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봇, AAM(미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수소에너지 생태계까 지 폭넓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배경이다.

정 회장은 올해 3월 뉴욕 모터쇼를 앞두고 공개된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량) 네오룬의 콘셉트카를 사전에 보고받았 을 때도 그랬다. 차량 앞 좌석과 뒷좌석의 가 운데 놓인 차체 옆 기둥 'B필러'가 사라진 네 오른의 디자인을 접한 정 회장의 반응은 "해

보죠. 이런 챌린지(도전)를 멈추지 맙시다' 였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소프 트웨어 기반 차량(SDV) 시대의 경쟁에 서도 정 회장의 판단은 '해보죠'다. 김동 진 전 현대차 총괄부회장은 "2000년대 토 요타의 하이브리드차량 프리우스가 '대 박'을 내는 걸 본 이후 그룹 내 위기감이

컸는데, 정 회장은 그 때부터 이미 전기차

와 SDV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해 역 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0년대부터 본격 적으로 SDV에 본인과 회사의 미래를 걸었 다. 기계공학 전공자 중심의 자동차 제조사 지만 전공·출신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 전 문가들을 불러 모았다. 당시로선 '스마트카' 라는 말이 주로 쓰일 때였다. 전자·정보기술 기업들이 주축인 소비자가전박람회(CES) 에 현대차·기아가 2009년부터 참가하기 시 작한 것도 정 회장의 의지였다. 그러면서 본 인이 영입한 소프트웨어 전공 임직원들에게 일관되게 주문했다.

"이 정도로 고객이 만족하겠습니까. 교통체 증때도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기술 만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죠."(2015년 3월, '혼 잡구간주행지원시스템' 공개행사에서)

한국의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집 념의 정주영 선대회장, 품질에서 밀리지 않 의선 회장의 미래 모빌리티 도전은 현대차 그룹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의 '해보죠'는 올해 입사 30주년을 맞은 그가 거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키워 드이자 현대차그룹의 미래를 보는 렌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정의선 리더십'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의선 연구〉 시리즈는 매주 월요일 더중앙플러스에서 연재된다.







CORE Physical Therapy&Rehab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 적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Lee Jackson Memorial Hwy.

50

28

Walney Rd.

김우기 통증•재활 물리치료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예약환자 예한해 주말예도 진료합니다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서울 열대야 역대 가장 빨랐다, 6월부터 잠 못드는 밤

강릉은 벌써 네번째, 일상화 추세 "낮 40도, 밤 30도 초열대야 올 수도"

때 이른 열대야로 인해 올여름 더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엔 기 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밤사이 서울 의 최저기온은 25.1도로 올해 첫 열대 야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 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의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해(6

월 28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졌을 뿐 아니라 1907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일렀다. 종전 기록은 2022년 기 록한 6월 26일이었다. 우진규 기상청 통 보관은 "최근 기온이 높았던 가운데 21 일 밤사이 남풍이 유입되고 흐린 날씨 로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

보통 열대야는 장마철 지나고 습하 고 더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고기압 이 확장하는 7~8월에 주로 발생한다. 하지만 폭염 시기가 앞당겨지며 열대야 시작도 빨라지는 추세다.

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이래 올해까지 3 년 연속으로 6월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 다. 강원 강릉에서는 이달 들어 벌써 네 번째 열대야가 관측됐다. '6월 열대야' 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 이 된 셈이다.

24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더위는 잠시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 지만, 주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30도 넘 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밤 기온도 전 국 대부분이 20도를 웃돌 전망이다. 본 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낮에 폭염, 밤에 열대야가 번갈아 나타 나는 날이 잦겠다. 전문가들은 밤 기온 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 날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전 지구적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니냐가 발달하면, 서태평양 해수 온 도가 높아지며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 오는 열에너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이로인해서울의 낮기온이 40도를 넘 어가며 초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서울에서는 2018년 처음 초열대야가 관측됐다. 천권필 기자



두둥실 떠오른 '서울의 달' 보름달 모양의 열기구 '서울의 달'이 23일 서울 여의도공원 상 공을 시험 비행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서울의 달이 정식 운영되면 150m 높이에서 풍경을 즐 길수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보다 센독감 올 수 있다… "한국형 백신에 1조원 투자"

질병청, 변이 인플루엔자 대응책 10개월만에 인구 41% 감염될수도 mRNA 백신개발예산확보나서

'넥스트 팬데믹(대유행)' 유력 후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 특히 A 형 인플루엔자의 하위종인 고병원성 H5N1은 신종 감염병으로 진화할 가능 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꼽힌다. 원래 닭 과 오리 등에서 주로 전파됐는데, 최근 여러 갈래로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며, 사람 간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 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일으키면 최악의 경우 10개 월(300일) 만에 인구의 최대 41.8%(최 소 16.5%)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시나 리오를 내놨다. 전파율을 R0(감염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평균 숫자) 1.5로, 바이러스 중증도를 2%로 가정한 수치다. 중증 환자는 28만8000 명까지 발생할 거로 봤다. 미국 질병통 제예방센터(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 린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및 대응 심포지움에

전 국장도 최근 이 바이러스의 대유행 은 시간문제라며 사망률을 최소 25% 에서 최대 50%로 예상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예측을 토대 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 개정안을 공개했다. 감시·자원·백신·원 헬스(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하나로 보는 것) 4대 분야에 14대 과제를 마련 하고, 3단계 대응책을 세웠다. 초기에 는 3T(테스트·추척·치료)를 기반으로 전파를 최소화하고, 확산시 백신·치료 등으로 중증・사망 예방에 집중하며, 마 지막에는 피해 규모에 따른 복구 계획

을세우는 내용이다.

이 중 핵심은 1조원 가까운 투자로 한국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 신을 2028년까지 확보하는 것이다. 코 로나19와 달리 인플루엔자는 이미 항 바이러스제와 백신이 있다. 하지만 기 존방식(유정란·세포배양)으로는 백신 생산에 최소 3~4개월이 걸린다. 반면 mRNA 백신은 제조 기간이 짧아 대 량 생산이 용이하고 바이러스 유전 정 보만 알면 빠르게 항원을 재설계·생산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코로나19 때도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가 초고속으로 mRNA 백신을 만들어 사태 대응에 큰 반전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의 손영래 감염병위기관 리국장은 "인플루엔자가 번졌을 때 기 백신의 균주를 변경하거나 시제품을 활용해 100일 이내로, 이미 개발된 아 형과 전혀 다른 유형이라고 해도 200 일 안에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 다. 이정민 백신개발팀장은 "(코로나19 때처럼) 또다시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 기 위한 개발에 나서는 것"이라며 "임

상을 거치고 품목 허가까지 받을 수 있 도록 대규모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일본이 3개 제 약사에 93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임상 3 상까지 지원했고 이 중 6500억원을 투 자한 제약회사 다이이치산코가 코로 나19 mRNA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며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로 투자해야 한 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 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이와 별도로 팬데믹 초 기 초동 대응을 위해 기 개발된 백신 7 만5000명분을 비축하기로 했다. 또 호 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현재 300 곳서 2027년 1000여 개소까지 늘리고, 전문병원(871병상)과 소아전문의(소아 과 24명, 소아감염 9명)도 확충하기로 했다. 엄중식 가천 길병원 감염내과 교 수는 지난 20일 관련 심포지엄에서 "인 플루엔자는 2세 미만 아이들에서 문 제가될수있다는게 코로나19와다른 점"이라며 "소아에 대한 대비를 추가해 야한다"고했다.

황수연 기자

흔들리는 청년 고용, 일 구직 안하고 39만8000명 쉰다

청년 임금근로자 일년새 20만명↓ 기업들 경력직 채용 우선에 영향

청년층에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 용직 근로자 수가 1년 전 대비 20만명 가까이 급감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 데도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 었음' 청년도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났 다. 기업에서 공채보다 경력직 채용을 중시하는 데다가 하반기 경기 불확실 성이 커지면서 청년층 고용에 '경고등' 이 켜졌단 우려가 나온다.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 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5만3000명으로 소사됐다. 1년 선보 다 19만 5000명 줄어든 수준으로 2014 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인구 감소를 고려하 더라도 지난해 5월 1만 명 감소한 것보 다감소폭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청년층고용감소의가장큰원인으로 는 기저효과가 꼽힌다. 임경은 통계청고 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가 잦아든 뒤

청년 상용직 고용이 급격히 늘었다. 고 점을찍은뒤지난해부터기저효과로다 소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기준 직은 2022년 255만8000명까지 확 늘었 다가지난해부터 감소중이다.

기업들의 신입 채용 방식이 변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체 채용에서 신입(경력 신입직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47%에서 지난 해 40.3%로 줄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공채 제도를 유지 중인 매출 1조원 이

상 기업 86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은 올해까지만 공채를 유지할 계 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내 기업 들의 대표적인 신입 채용 방식은 '정기 공채'였지만이제는 '경력직 채용'을 우 선하면서 상대석으로 경험이 없는 정 년들이 밀리고 있는 것이다. 박영범 한 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기가 불확실한 점도 기업들의 고용을 위축 시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거보다 워라밸의 중요성이 높아 지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이 커진 점도 취업을 지연시키는 요소 로 꼽힌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 따 르면 직업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근무여건(31.5%)을 택한 이들이 임금 (26.8%)을 넘어섰다.

박영범 교수는 "청년층의 경우 한 번 발을 남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젓 단 추를 잘 끼우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이 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 다. 실제 지난달 청년층 중 일도 구직활 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1년 전 보다 1만3000명 늘어난 39만8000명으 로 집계됐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많다.

세종=이우림 기자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입니다.

>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 개인상해 보상청구
- © Chapter 7: 개인 파산
-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mark>소송전문</mark>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obert Harris

Regina Domingo Chris Shin Esq.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301.775.2774 MD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GTAX Consulting Group IRS감사 세무랑감

젠문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대교)을린 홈 헬스케어

"밝고 맑고 건강하게 열년 행소케어가 함께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상담



롱 텀 케어 서비스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2024년 하반기 오픈 예정

양로원에 들어가실 분들과 나오실 분들께 그룹 홈이나 양로 호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니어 부부는 그룹 홈으로 모십니다!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대표 김종훈

문의 및 안내 Doug Ko, PMP, Directo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s

Mobile: (703) 268-0107 Office: (703) 280-0910



HEALTH CARE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나경원·원희룡 "윤정부성공을" …윤상현 "야당 5회 꺾은 후보"

나, 차기대선 불출마 카드 꺼내 원, 윤·한 갈등 폭로하며 차별화

》 1면 '전당대회'에서 계속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도입할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집권당과 정부가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당 대표가 되 면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 속실 즉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 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진짜 해 야 한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누차 강 조했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과의 차별 화에 신경을 썼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무 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 다. 레드팀을 만들어 생생한 민심을 직 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의 거리를 부각하기 위한 폭로도 곁들 였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당시(지 난 19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했는데, 정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전화드리는 게 예의 아닌가'라고 했다" 며 "그 뒤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께 전 화했는데, 대통령이 '잘해 봐라'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그는 "엘살바도르 특사 보고차 용산에 다녀왔을 때 (윤 대통령이) 이미 다른 후보(나경원·윤 상현)들은 다만나고식사도했다고말 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 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수도 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 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 겠다"고 말했다. 친윤계의 방해로 지 난해 3.8 전당대회 출마를 접었던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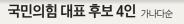
"저는 자유롭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며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 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 당정 동 행, 밀어주고 끌어주며 같이 갈 것"이라 고말했다

그는 '차기 대선 불출마'도 카드로 꺼 냈다. 당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하려면 대선 1년6개월 전인 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당권·대권 분리 규정 때문에 한 전 장관이나 원 전 장관이 당 대표가 되면 중도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면 자격을 갖추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 다"(한 전 위원장), "나중 문제는 그때 국민이 어떻게 불러주시냐에 따라 생 각할 문제"(원 전 장관)라는 입장을 내 놨다. 여건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에 나 가겠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공천 위협 앞에서도 용기 있게 수 도권 위기론을 꾸준히 말했나. 누가 생 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뺄셈 정치'는 안 된다고 용기 있게 목소리 냈나. 누가 수 도권 최전방에서 다섯 번이나 민주당 과 싸워 이겼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상현이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표"라고 주장했다.

경쟁 주자들을 향해선 "홍준표, 오 세훈, 안철수, 유승민과 함께 대선 경선 에 참여하는 게 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 출마 선언에서 "대통 령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시중 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 하겠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때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또 때로는 대통령 을 견인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





나경원

"계파·사심 없는 적임자 ··· 당정 동행"

당권-대권 분리

당정 관계

"대선 불출마… 이기는 기틀 만들겠다"

- ▶ 서울대 법학
- ▶ 사법고시 34회, 판사
- ▶ 5선 의원(現)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원희룡

"대통령과 신뢰 … 레드팀 만들어 민심 전달"

당권-대권 분리

당정 관계

"2~3년 뒤 문제 … 당원과 국민이 결정할 일"

- ▶ 서울대 법학
- ▶ 사법고시 34회, 검사
 - ▶ 3선 의원(前)
 - ▶ 37·38대 제주지사 ▶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이기는 당 되려면 대통령과 당 갈등하면 안 돼"

당권-대권 분리

▶ 서울대 경제학

▶ 새누리당 사무총장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5선 의원(現)

"당은 내게 맡기고, 한동훈· 원희룡·나경원 대선 나가야"

수 있으면 대선 나와야"

"누구나 1년 뒤 확실히 이길

한동훈

"대통령과 공적 관계 …

채 상병 특검 추진"

당권-대권 분리

- ▶ 서울대 법학
- ▶ 사법고시 37회, 검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 ▶ 법무부 장관

민주당 내 "경쟁 없는 또대명, 전대흥행 빨간불"

〈또 당대표는 이재명〉

이재명, 연임 도전 선언 '초읽기' 친명계 "사법리스크 방어에 유리" 일각 "여당 전대에 관심뺏길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연임 도전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당 관계자는 23일 "추가 원 구성 협상이 결론 나면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 고 8월 18일 전당대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원구 성 속도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발표에 무게가 실린다.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는 김 민석(4선)·전현희(3선)·강선

우·민형배·한준호(이상 재선) 의원 등 친명계가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정봉 주 전 의원과 김지호 부대변인 이름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이재명), '또대명'(또당대표 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지는 것에 대 해 우려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반 전도, 경쟁도 없는 전당대회에 어떤 중

> 도층이 호응하겠나"라며 "이 대표 와 친명 지도부를 추대하고 강 성 지지층이 환호하는 그들 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 다"고 꼬집었다. 계파색이 옅 은 민주당 의원은 "4월 이재명 총선 압승 후 줄곧 여

론 주도권을 쥐었는데, 전당대회를 기 점으로 (4파전을 벌이는) 여당에 주목 도를 내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586 운동권의 맏형 격인 이인영(5선) 의원의 대표직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 인사는 "당 에 20~30명이라도 친명 아닌 다른 세 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의 원을 설득하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그렇더라도 "어대명 판세를 뒤집긴 역 부족"(3선 의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이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은 자신의 사 법리스크와 직결돼 있다. 이 대표는 대 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및 성남FC 불 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

주일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유력

"인사검증 마쳐, 주재국 동의 수순

박철희(사진) 국립외교원장이 차기 주 일 대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3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 서 "박 원장이 최근 인사 검증을 마쳤 다"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아

Vienna, VA 22182 dc-eye

이라고 했다. 주일 대사의 경우 주재국 동의에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

박 원장은 서울대에서 정치학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일본 정치를 전 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서울대 국제대

학원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대 일본연 구소장, 현대일본학회장을 지냈다. 윤 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정 책자문단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했으며,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 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 원을 맡았다.

2022년 4월 한일정책협의단 일 행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 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본 총리에게 윤 대통령 당선인의 친서 를 전달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차관급 인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 중 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원장은 한일 관계 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총리 와 만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도록 합심해서 준비하자"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 밀착에 맞선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는 것 도신임 주일 대사의 임무가 될 것"이라 며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 사도 광 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 등 한일 간 현안도 신임 주일 대사가 풀 어야한다"고전했다. 현일훈 기자





대한민국 △1万 **중앙일보**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한동훈 "공적관계" 대통령에 각세워 "용산 "야당식 정치하나"



7개 상임위원장 협상 또 결렬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추경호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의장실에서 여야 원 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나머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친명계 "이재명 중심 뭉쳐야 특검법 힘 실려"

↘ 위증교사의혹으로재판을받고있 다. 여기에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되면 서 '주4일 재판'이 현실화하고 있다. 친 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이어가야 향후 당이 검찰에 맞설 때 '당 대표를 지킨다'는 명분이 설 수 있다" 고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당이 대표의 리스 전권을 행사하지 않고 물러나는 등의

크를 함께 짊어져야 하기에 오히려 당 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특검법, 대정부 공세에 힘이 실린다"는 주장이 대세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당 인사는 "이 대 표가 연임하더라도 향후 지방선거 공

행보를 보이면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당 "비상시 최고위원, 대표 승 계"=조국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7월 20일)와 관련해 대표와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하되, 대표 궐위 시에는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가 대표의 잔여 임기를 승 계하기로 당헌을 개정했다.

손국희·김정재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서 예상보다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 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적 관계"로 규 정하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온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법안도 추진하겠 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전위원장은출마선언후윤대통 령과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 는 공적 관계에 사적인 친소 관계가 관 심의 대상이 되고, 그 여부가 공적 결정 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자신과의 오 차을 거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 왔다"며 인 연을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달랐다.

한 전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서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엔 반대하면서도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 는 특검법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밝 혔다.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 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 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입장 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제2 부속실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히며 "안할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으로 부임한 이후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갈등을 반복해 '윤·한 갈등'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당 권 경쟁을 앞두고 당정 갈등을 우려하

는 지지층이 많은 만큼 당초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당정 갈등 소지는 없애는 발언이 나오 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경선 캠 프내부에서도 "예상보다 수위가 좀 더 올라간 것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회견문은 한 전 위원장이 직접 큰 틀 을잡고, 세부 발언 등은 캠프 관계자들 과 전날까지 상의를 거친 결과라고 한 다. 한 전 위원장 측 인사는 "어쩔 수 없 는 선택이었다"며 "사자성어로 하면 육 참골단(肉斬骨斷·작은 손실을 보는 대 신큰승리를 거둔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전방위적인 특검 공세 를 우리가 이겨낼 방안은 합리적인 대 립항을 내놓고 야당과 협상하는 것"이 라고 말했다.

'정치인 한동훈'의 홀로서기를 노린 포석이란 시각도 있다. 친한계 의원은 "더는 윤심 아니라 민심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 고선 총선의 패인을 그대로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도 망하고, 대선도 망할 순 없지 않냐"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익명을 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 크게 벌리고, 국민이 대통령을 멀리하게 만 드는 야당식 정치를 해서는 정권 재창 출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도 "여당 대표 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감과 안 정감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윤지원 기자

"알리·테무·쉬인 버거운데 유튜브까지"···위기 맞은 국내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함께 차이나 커머스 3대장으로 꼽히는 쉬인, 여기에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경 쟁업체 틱톡까지, 글로벌 플랫폼 업체 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잇따라 도 전장을 내고 있다. 손실을 감내하며 외 형 성장에 주력하던 국내 이커머스 업 계는 소비 침체에 외부 공세까지 쏟아 지자 생존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23일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 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일 서브 브랜드 '데이지'의 첫 글로벌 앰배서더 (홍보대사)로 배우 김유정을 선정하고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다. 쉬인은 지난

2022년 12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지 난해 8월부터 SNS 마케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한국 전용 홈페이지

전 세계 150여개국에 진출한 쉬인은 지난해 순이익 20억 달러를 거두며 경 쟁 브랜드인 자라, H&M의 실적을 넘 어섰다. 보니 리우 쉬인코리아 마케팅 담당자는 "한국은 패션 스타일, 엔터테 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 도하고 있다"며 "김유정 배우와 한국 의 패션 스타일을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글로벌 진출

을 위한 매력적인 테스트베드로 꼽힌 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며 구매력 있 는 이용자층을 갖췄기 때문이다. 구글 은 지난 19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 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선보이 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했다. 동 영상 설명 하단에 구매 카테고리를 추 가해 동영상에 나오는 제품을 바로 구 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쇼핑 기능을 개발한 국내 전 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 측은 "구글 계 정으로 간단히 회원가입하면 전용 스 토어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

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제품 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 카페24에 260억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이커머스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틱톡도 국내에 틱톡숍 개설을 준비 중이다. 틱톡숍은 지난 2021년 인도네 시아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국, 영국 등서비스지역을확대 중이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 200억 달 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 전망치는 약 500억 달러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틱톡숍 상표를 출원했고 풀필먼 트(물류·창고) 기능도 갖추기 시작해 이르면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 며 "시청자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이 이 크다. 국내 이커머스업체는 인적 쇄

신, 비용 절감 등 생존을 위한 전략 마 련에 골몰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 난 19일 이커머스 계열사인 지마켓과 SSG닷컴 대표를 모두 교체하는 강수 를 뒀다. 지마켓 새 수장으로 알리바바 코리아 출신 정형권 대표를 선임하고, 네이버·쿠팡 출신 임원진을 영입하는 등 외부 인력을 수혈하고 조직 개편도

롯데쇼핑 이커머스 사업부문인 롯데 온은 이달 초 임직원 희망퇴직을 공지 했다. 2020년 롯데온 출범 이후 첫 희망 퇴직이다. 지난달에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구매 상품을 2시간 이내 배송하 는 롯데마트몰 '바로배송' 서비스도 중 단했다. 김경미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개런티 이자 **/**단기 (3년, 5년, 7년) /복리 이자

유니티 보험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 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3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www.naturadent.net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무이자 Plan, Care Credit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Root Canal

- 잇몸치료 - 치아교정

Orthodontics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 치아성형 신경치료

Veneer

Lumineers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베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루기

진천에 살아? 진천에서 살아?

친구가 말했다. "진천은 말이야 생거진천이 라고 하지.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여. 그런 데 나는 '진천에 산다'고 하는데, 서울에 사 는 친구는 '서울에서 산다'고도 자주 그러 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산다'고 그러 는 겨? 서울하고 말이 달라서 그런 겨, 아니 면둘중누가틀린겨?"

나는 "둘다 맞는 겨"라고 했다. '살다'는 말앞에는 그장소뒤에 '에'도, '에서'도붙 는다. '진천에 산다'고도, '진천에서 산다'고 도할수있다. 둘다 자연스럽게 오간다. 다 만 이때 어감은 조금 다르다. '진천에 산다' 고 하면 단순히 거주하거나 존재하고 있다 는 사실이 전달된다. 그렇지만 '진천에서 산 다'고 말하면 '움직임' 같은 게 다가온다.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말 '있다'와 '없다' 가 쓰인 문장에서는 '에'가 자연스럽고, '에 서'는 아주 부자연스럽다. 누구나 '공원에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공원에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색해한다. '공원에서' 뒤에 어떤 동작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공원에서 사람이 없다'고도 하지 않는다. '없다'에도 움직임이 없어서 망설임 없이 '공원에'를 선택하게 된다. '산책한다' 는 움직임이 뚜렷한 말이다. 그래서 '공원 에서 산책한다'고 한다. 이렇듯 '에서'는 움 직임이 분명한 말, '에'는 그렇지 않은 말과 잘 어울린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흥주 칼럼

6.25전쟁 트루만에 감사 한다

필자는 지금도 6.25 전쟁이 발발한 당시 상황을 회고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뜻을 되새겨 본다.

1950년 새벽 북괴군이 일제히 3.8선을 돌파 탱 크와 기관포 등을 앞세워 진격해 왔다. 3일 만에 서 울이 함락되고 그 기세로 대전, 대구까지 물밀 듯이 진격, 머지않아 부산만 함락되면 대한민국 이 초 토화되는 위기상황에 놓였다. 이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 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세가 뒤바 뀌고 급기야 대한민국이 존립 할 수 있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때, 미국 33, 34대 대통령을 역임한 헤리스 트 루먼(Harrys Truman)이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미 군을 참전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20세기의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이다.학벌이 없고 집안 배경 도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가졌던 직 업도 역시 변변치 않았다.

기차역에서 검표 요원을 하기도 하고 조그만 상 점을 경영하기도 했지만 그나마 잘되지 않아 문을 닫아야 했다. 이런 평범한 사람이 세계 최강국 미 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자체가 대단히 신기한 일 이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트루먼은 하 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예비한 것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그는 1차 대전이 일어나 자 자원해서 입대했다. 원래 트루먼은 지독한 근 시 때문에 군 복무는 불가하나 육군 신체검사에 서 시력 검사판을 통째로 외워서 통과한 후 포병 장교가 되어 대위까지 승진한 특유의 용기가 있 었던 사람이다.

1944년 부통령이 되었고, 1945년 4월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별세하자 이어 대통령이 되었 다. 2차대전 막바지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지시하였다. 트루먼 대통령 재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임 당시 한국전 총사령관이 맥아더 장군 이었다. 분이 남한 대통령 이승만 박사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에 건너가 UN 본부에서 불법 침입한 공산군을 무찌르는데 UN군 파견을 역설, 공산 권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만장일치 합 의를 돌출해 냈다. 이승만 박사는 하버드대를 나 오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인재 다. 굉장히 곧고 또 오만한 성격이다.

다 망해가는 나라를 미국이 구해줬음에도 이승 만 대통령은 절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특히 압 록강까지 진격 남북통일을 꾀했으나 트루먼의 제 지로 무산된 것에 유감도 있었으리라. 백악관 회 담에서 트루먼 대통령을 향해 이런 고약한 사람 이 있는가!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경우 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한국 을도와준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었다.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때 통상 5개국 이상이 전 쟁에 개입할 때를 '세계대전'이라고 부른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은 대한민국과 북 한 괴뢰정권 간 의 전쟁이었지만 전쟁에 UN 산하 16개국이 참전 하였고, 그에 맞선 구소련과 중공이 참전함으로 써, 6.25전쟁은 단순히 한국 내의 국지적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이 라 불릴 만 했다.

전쟁에는 언제나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법 으로, 6.25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휴전이 라는 미명으로 74년을 지내오고 있다. 휴전(정

전) 상태에 서 지금 우리는 6.25전쟁의 원인을 기 억하고 다시금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를 바라면 서 74년 전의 그 아픈 전쟁 역사를 생각 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1) 유럽에서는 영국이 도버해협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태리 남부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써 적국 독일을 하루아침 에 무너뜨렸다. 한편 극동지역에서는 미국이 필리 트루먼과 한국전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핀에 상륙하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을 투하함으로써 결국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명을 받은 미국의 B29편 대가 가공할 위력을 지닌 원자폭탄을 장착하고 일본 동경만으로 비행했다.

> 당시 동경만 일대는 짙은 구름과 안개로 지상 상 황을 도무지 분별할 수 없었기에 디세이져 대령 이 이끄는 B29편대는 폭격 목표인 동경에 원자 탄 을 투하하지 못하고 일본 상공을 선회했는데 구 름이 그치고 안개가 점차 사라지면서 지상이 보 이기 시작하자 디세이져 대령은 이때라고 판단하 고,B29편대에 명령하여 원자폭탄을 투하한 곳이 바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였다. 일본의 나가사키 와 히로시마는 일본에서 제일 타락한 범죄 도시 였는데 디세이져 대령의 B29는 바로 그 나가사키 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무려 20여만 명의 희생자를 남기게 되었다.

> 이에 유럽에서 독일이, 극동에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었고, 연합국 인 미국, 영국, 중국 등이 독 일 동부의 포츠담에 회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처 리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었다.

>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 국의 장개석 총통, 여기에 1945년 8월 15일 하루 전인 8월 14일에 일본 사할린에 폭격을 한 소련의 스탈린이 포츠담 3상 회의에 참여하여 실제로 포 츠담 4상 회의가 되었다.

독자마당

뿌듯했던 모국 방문

미주중앙일보가 창간 50주년 행사의 하나로 마 련한 9박10일 모국 방문 여행을 다녀왔다. 사실 90세가 넘은 수퍼 시니어가 낯선 분들과 오랫동 안 함께 여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면 서도 꼭 독도를 다녀오고 싶은 욕심에 여행단에 참여했다.

특히 독도는 아직도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섬이기에 꼭 가보고 싶었다. 현지 사정에 따라 못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하늘 에 맡기기로 했다. 독도 방문을 위해 먼저 도착 한 울릉도도 나에겐 처음이었다.

비록 짧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섬의 독특한 자 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오징어 등 맛있는 현지 음 가해 꼭 독도 여행도 하고 싶다.

식도 먹었다.

그런데 독도로 떠나는 날 무서운 파도가 밀려 와 기대를 앗아갔다. 역시 독도 여행은 가고 싶 다고 가는 곳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 지켜보던 울등도 사람들은 "녹도 여행은 3대가 하늘에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며 우리를 위로했다. 아쉽지만 우리는 다음을 기약 하고 포항으로 돌아왔다.

이번 모국 여행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오랫동 았다. 안 외국 생활을 한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곳 들을 방문했고 가는 곳마다 과분한 대접을 받았 다.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이었고, 다음에도 참

한국의 곳곳을 둘러보니 경제 대국이라는 말 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과거보다 놀랄 정도로 발 전한 모습에 놀랍고 고마웠다. 옛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나로서는 짧은 시간에 놀랍게 발 전한 한국이 자랑스러웠다.

산과 강이 있고 은빛 모래사장 주변의 예쁜 마을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한반 도를 금수강산이라고 한 것이 빈말이 아닌 것 같

내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은 언제 찾아도 나를 반겨주는 곳이다. 미국에서도 한국인의 긍 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임순·LA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Jaewoon Lee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취업 비자 (H1-B)
- ◆종교 비자 (R1)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주재원 비자 (L1)
- ◆시민권 신청 (N-400)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OTH은 이민법 변호사 T.703-916-1111/703-916-1215 Fax. 703-563-6028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촌 길건너편)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사고후유증
 ✓ 손, 발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통증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목,허리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라빌 (301) 279-6960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라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ASK미국 온·오프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 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알버트 장 노동법 변호사

Q 성과급제 직원들이 근무 중 대기하는 시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문= 네일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를 서비스한 손님 숫자 당 얼마로 책정하 여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 대기하 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피스 레잇(Piece-rate) 혹은 성과 기준 급여 체계를 사용하시는 사업주 분 들중 노동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스 레잇 급여는 전통적인 시 간당 임금이 아닌 일종의 성과급 개념의 임금 체계로, 주로 봉제 업, 자동차 정비, 의료 및 서비스업, 기술직 등에서 흔히 사 용되는 급여 지급 방식입니다. 작업한 의 류 1장당 얼마, 브레이크 작업시간, 튜닝 시간당 얼마, 설치한 전화기 수당 얼마와 같이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 식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분들이 흔히 혼동하시는 것 중 직원의 성과 기준 요율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급여로 환산하면 이미 최저 임금 이상 지급이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곤합니다.

그러나 법은 성과의 기준이 되는 작업 시간과 관계가 없는, 직원의 휴식시간, 작 업과 작업 중 대기하는 시간 등 소위 "비 성과 시간"(non-productive hours)에 대 해서도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러한 시간 역시 고용인의 통제 하에 있는 " 근무시간"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본인들이 지급하는 피스 레잇 성과급이 얼마나 높은지에 상관없이 거기에 이러한 비 성과 시간의 급여가 포 함되어 있다고 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고용주는 피스 레잇 혹은 성과급제 를 채택한다 할지라도 직원의 시간을 별 도로 추적하여 비성과 시간에 대해서 별 도로시간당임금을지급해주어야하는데, 그지급률은한주를기준으로직원의주급을 그주에일한시간으로나는직원의평균시간급과최저임금율중높은율이적용됩니다. 또한직원들에게성과단위작업량,비성과근무시간, 각각의지급률을별도로표시한세부적인임금명세서를제공해서본인들의급여가어떻게계산되었는지알수있도록해주어야합니다. 안전한방법은직원의모든근무시간에대해최저임금이상으로시간당급여를지급하고,추가로일정액의성과급을지급하는것입니다.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Q고급 자동차에도 레몬법 문제가 있나

▶문= 고급 자동차에도 레몬법 문제가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고급 자동차에는 실제로 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기능은 종종 더 많은 결함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더 많고 기술이 컴퓨터화되어 있어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구성요소가 더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명품브랜드가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더 빠르고 더큰 현금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고급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레몬법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캘리포니아주가 레몬법으로 보상을 받기 가장 쉬운 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 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지난해 만 해도 2023년에는 178만 대의 자동차 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 처럼 정부는 결함이 있는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캘리포니 아주를 보상받기 가장 쉬운 주로 만들었 다. 따라서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을 활용하시기 바랍 ▶문= 레몬법 보상을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평균적인 새 자동차는 첫해에만 그가치의 약 20%를 잃습니다. 5년이 지 나면 그수치는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경 우 레몬법 보상으로 이러한 급격한 감가 상각을 상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문= Stop-and-go 차량에 더 많은 문제를 아기합니까?

▶답= Stop-and-go 교통 상황에서 차량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레이크 마모가 빨라지고 파

손됩니다. 심한 브레이크 소음과 자주 휘어지는 로터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빈번한 오일 교환. 비정상 적인 오일 소비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되는 움푹 들어간 곳 (LA 도로의 44%는 상태가 좋지 않음)을 통과하여 운전하면 충격, 버팀대, 스프링 및 컨트롤 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이는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엔진 과열 및 엔진 조명 점검은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회전은 배터리를 과도하게 구동할 수 있으며 빈번한 배터리 방전 문제는 레몬법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우리 유산 상속법 변호사

Q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 인출 바로 하면 안 되는 걸까

▶문=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바로 써도되나?
▶답= 상속 예금 인출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필수다." 망인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은 상속인에게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망신고와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우선시되어야한다.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상 속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고, 훗날 다 른 형제가 이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상 속재산분할은 물론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은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

다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된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될 때 재판을 통해 상속법에 기재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면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참하고, 모두 동의해야 한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가 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상속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 에 방문하면된다.

▶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이 가 로챈 것 같은데 어머니 재산을 내가 확인할

방법은 없나?

▶답=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 인이라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보험, 증권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통해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 는 횡령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 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 기죄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 또는 체 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때) 범 죄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상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상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해받아야 했을 상속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43rd **30-91** Student Art & Video Contest 학생미술.영상공모전









- ✓ 온라인 출품 시스템 (미주 전 지역에서 온라인 출품 가능)
- ✔ 아시안 최대규모 시상 및 장학금 수여 (총 241명 / 총 11,700불)
- ✓ 미술부문 최대 3 작품까지 출품 가능 (주요상제외 중복 입상가능)
- ✔ 영상부문 8학년 이상 (개인, 팀(최대 4인)단위로 참가 가능)

작품 접수

접수기간:

2024년 5월 20일(월) ~ 7월 7일(일)



미술 부문

- 참가대상 프리스쿨 ~ 12학년 (현재 학년)
- 작품주제 **자유 주제**
- 참가부문 유치부 (Preschool ~ kinder) **초등부 저** (1~2 학년) **초등부 고** (3~5 학년) 중등부 (6~8 학년) 고등부 (9~12 학년)
- 작품규격 제한 없으나 기재 필요 (태블릿 드로잉 허용) (3D 조각, 조형물 제외)

참가비 안내

\$20 (참가자 전원 기념품 제공) Bank of Hope 고객 50% 할인 / 10인 이상 단체 10% 할인 (중복할인 없음)



- 참가대상 8학년 ~ 12학년 (현재학년)
- 작품주제 **희망** (Hope)
- 참가부문 **개인, 팀**(최대 4 인) **단위 참가 가능**
- 작품규격 **영상길이** (1~3 분, 16:9 가로비율)

시상금

시상내역

見	총만물이	사 명	부 문	미술.		영상부	
		0 0	一 正	수상인원	시상금	수상팀(전부문)	시상금
1	대상	Dank of Hone At	초등 이하	1명	\$1,000	1팀	\$500
	-II.Q	Bank of Hope 상	중등 이상	1명	\$1,000		
	1등	Bank of Hope 행장상	각 부문 (1명)	5명	\$300	2팀	\$300
	2등	중앙일보 사장상	각 부문(3명) ^{중고등부(6명)}	21명	\$200	5팀	\$200
	3등	해피빌리지상	전 부문	70명	\$20	15팀	\$20
	4등	가작	전 부문	100명	상장	20팀	상장
					*여기	ᆸᄆᇬᇝ	1 E ¢200

*영상부문인기상 1팀 \$200



세부 정보 및 온라인 참가 신청

artcontest.koreadaily.com

문의 : 213-368-3723 (2577) (중앙일보교육연구소)





Hosted by **The JoongAng**



Sung Hwang&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DC,VA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MARYLAND OFFICE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약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Thuman manual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 /휴직 보상소해배상
- 민사소송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의료사고
-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세계 2위 로텀)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Kim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o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임종범 대표 변호사(VA/MD)

이민법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r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 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옵니다.

t,(703)303-4556/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1,000

Dental Implant \$1

[치과 임플란트]

시민권

NI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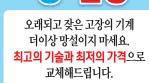
영주권(결혼/취업)

703-333-2005

JOY LAW GROUP

ろれ Sports

Monday, June 24, 2024 C





제대로 설치해야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나스닥 노크 K기업들

"입성 땐 투자받기 쉽고 몸값 상승"

지난달 31일 네이버의 손자회사 네이 버웹툰은 미국에 있는 모회사 웹툰엔 터테인먼트를 통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나스닥 기업공개(IPO)를 위 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르면 다음 달 상 장이 예상된다. 여가 정보 플랫폼 기업 야놀자도 나스닥 상장 준비를 본격화 하는 분위기다. 최근 재계에 따르면 야 놀자는 올해 2월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블룸버그는 야놀자가 최대 90억 달러 (약 12조4000억원) 규모 기업가치로 상 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장 주관사는 골드만식스와 모건스태리로 알려졌다. G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이끄는 이커머스 기업 큐텐, 인공지능 (AI) 재난 감시 솔루션 기업 로제타텍 산하의 로제AI도 연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큐텐·로제AI도 연내 나스닥 상장 추진

한국 기업들이 잇따라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관심을 끈다. 통상 정석적인 길 로 인식되던 코스피·코스닥 등 한국내 증시 상장 대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 턴'을 감수한 미 증시 상장을 택하고 있 는 것이다. 특히 나스닥은 그간 상장했 던 한국 기업들이 거래 부진과 회사 매 각 등을 이유로 대부분 상장폐지, 한국 기업엔 무덤과도 같은 증시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던 쿠팡도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NYSE) 상장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한국 기업들은 유독 나스닥 과 연이 닿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나스닥 상 장 추진 배경을 다각도로 해석 중이다. 첫째, 글로벌 진출을 핵심 목표로 삼은 기업일수록 나스닥 상장이 유리해서

다. 나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은 올해 3 월 기준 25조4300억 달러(약 3경4903조 원)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정점에 있다. 또 나스닥 상장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584곳으로 NYSE 상장 기업(2272곳) 보다 많고, 이 중 23%인 826곳은 미국 이 아닌 외국 기업이다.

그만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땅'이 다. 법무법인 한미의 김철기 대표변호 사는 "나스닥에 상장하면 접근 가능한 투자자 범위부터가 (한국내 증시와) 달 라진다"며 "대규모 해외 자본 조달로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가능해질뿐더러, 주요 외신에 노출되면서 강력한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네이버웹툰의 소식을 보도 하면서 나스닥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 업가치가 최대 40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업계는 네이버가 나스닥 상장으 로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 인수· 합병(M&A)과 해외 작가 발굴 등에 투 자하면서 글로벌 콘텐트 시장 장악력 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제AI도 나스닥 상장에 성공할 경우 한국내 상 장 때보다 기업가치가 10배 높아질 것 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둘째, 과거에 비해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선(先)투자가 늘었는데, 이 런 해외 투자자들이 나스닥 상장을 적 극 요구해서다. 야놀자의 경우 애초 한 국내 상장을 우선 검토했지만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17 억 달러(약 2조3000억원)를 투자받은 것을 계기로 나스닥 상장으로 눈을 돌 렸다. 비전펀드 측은 투자금 회수에 더

유리한 나스닥 상장을 야놀자에 요구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상장 문턱 이 높은 한국내보다 나스닥 상장이 외 려 쉬울 수도 있어서다. 코스피에 상장 하려면 자기자본 3000억원, 상장주식 100만 주, 일반주주 500명, 연 매출 최근 1000억원 또는 3년 평균 700억원(연간 세전이익 최근 30억원 또는 3년 평균 60 억원), 회사 설립 3년 경과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스피, 연 매출 1000억 등 상장 문턱

또는 ▶시총 2000억원 및 연 매출 1000 억원 ▶시총 6000억원 및 자기자본 2000 억원 ▶시총 2000억원 및 연간 영업이익 50억원 ▶시총 1조원 중 하나를 충족해 성장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창균 기자

>> 2면 '나스닥'으로 이어집니다











브랜드 정체성 원칙 파괴하자 브랜드가 더 가까워졌다

1887년 만들어진 코카콜라의 물결무 늬 로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친근하 고 익숙한 브랜드인 만큼 길거리 아티 스트의 단골 소재로 사용된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가게와 식당의 간판, 벽면 에 누군가 서툴게 그린 코카콜라 로고 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브랜드 로고는 기업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핵심 자산 으로 폰트나 디자인, 색상을 조금만 바 꿔도 문제시된다. 동의나 허가 없는 사 용은 상표권 침해이자 브랜드 정체성 을 해치는 행위로 여겨진다.

'모든 코카콜라를 환영한다' 캠페인

지난 4월 코카콜라는 '모든 코카콜 라를 환영한다(Every Coca-Cola is Welcome)'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무 단으로 사용된 로고를 수용하고 아예 그중 일부를 캔 디자인과 광고에 활용 한다. 변형된 로고를 가치 있는 예술적 창작물로 인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소 개한다는 취지다. 가게 주인이 그린 엉 성한 로고도 브랜드와 지역 문화가 융 합된 작품으로 해석된다. 코카콜라는 다양한 비공식 로고를 적용한 캔 콜라 를 미국과 브라질, 호주 등지에서 판매 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인 스타그램으로 전파하고 있다.

DIY 가구를 판매하는 이케아는 '해 킹당한 이케아(IKEA Hacked)'로 유 명하다. 제품을 원래 용도가 아닌 개인 의 목적과 취향에 맞춰 새롭게 설계하 고 조립하는 해커 소비자가 많기 때문 이다. 여러 개의 스툴을 이용해서 책 장이나 자전거를 만드는 식이다. 온전 한 제품을 버리고 포장 상자만 사용하 기도 한다. 제품 본연의 가치를 떨어 뜨리니 이케아로서는 불쾌해할 만하 다. 2014년에는 해킹 정보 공유 사이트 (Ikeahackers.net)에 법적 대응을 예 고하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브랜드 해커들을 살펴본 이 케아는 그들이 열렬한 팬 고객임을 알



■ 코카콜라의 '모든 코카콜라를 환영한다(Every Coca-Cola is Welcome)' 캠페인. 2 이케아 프 락타(FRAKTA) 가방으로 만든 드레스, █ 앤드루 르위키의 루이비통 와플 메이커, █ LA 왁도날드 [사진 각 기업]

코카콜라, 엉성한 로고까지 수용 이케아, '브랜드 해커' 작품 전시 친근함 위트로 팬덤 강화 효과도

게 되었다. 이후 이케아는 해킹을 창의 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홈페이지, 인스 타그램 등을 통해 소개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엘름훌트에 있는 이케아 박물 관에서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몽당연 필 6971개로 만든 펜슬 체어, 1000원짜 리 프락타(FRAKTA) 가방으로 만든 드레스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탄생 한 해킹 작품들을 전시한다. 노스 인테 리어(Norse Interiors), 홀트(Hølte) 등 이케아 제품을 개조해 고객 맞춤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스튜디오도 등 장했다.

실험예술가의 루이비통 와플 메이커

실험적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 앤 드루 르위키(Andrew Lewicki)는 유 명 브랜드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재구 성해 유쾌함과 재미를 선사한다. 초콜 릿 쿠키 오레오 모양의 맨홀 뚜껑, 루

이비통 모노그램이 새겨진 와플 메이 커가 대표작이다. 저작권 침해에 극도 로 민감한 루이비통이 발끈할 만하지 만, 아무런 항의 없이 조용히 지켜볼 뿐이다. 예술가의 도발적인 시도는 오 히려 대중 소비자들이 권위적인 고가 명품 브랜드에게 친근감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월 맥도날드가 시도한 '왁도 날드(WcDonald)'캠페인도 흥미롭 다. 왁도날드는 1980년대 일본 애니메 이션이 로고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 해 맥도날드의 M자 아치 로고를 뒤집 어 사용한 데서 유래한다. 맥도날드가 애니메이션 곳곳에서 등장했던 왁도 날드를 현실 세계에 소개하기로 한 것 이다. LA의 한 매장을 만화 속 왁도날 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 로 만들고, 전용 너깃과 칠리소스를 판 매했다.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 사인 스튜디오 피에로와 함께 왁도날 드가 등장하는 온라인 애니메이션 시 리즈도 제작했다. 모조 브랜드로 치부 될 수 있는 왁도날드를 오랜 고객 팬들 의 마음속에 담긴 추억의 징표로 여기

고 브랜드 자산의 한 부분으 로 받아들인 것이다.

브랜드 고유의 글씨체, 폰트 를 활용하는 전략도 눈에 띈다. 이 미 만들어진 일반적인 서체가 아닌 독 특한 브랜드 서체를 직접 개발하는 기 업이 많아졌다. 글씨체가 사업 특성과 브랜드 정체성, 기업 문화 등을 복합적 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특성을 잘 담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동시에 경쟁사와는 차별될수록 좋은 글씨체라 할 수 있다.

요즘에는 공들여 제작한 폰트를 패 키지나 광고에 활용하는 데서 나아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추세가 되었다. 브랜드 글씨체를 사용한 폰트 마케팅으로는 배달의 민족이 유명하다. 배달의 민족 은 2013년부터 한나체, 주아체, 을지로 체를 비롯한 10여 개 글꼴을 개발해 홈 페이지에서 무료 배포해왔다. 최근에 는 롯데마트, 아모레퍼시픽 등 폰트 마 케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배민 등 기업, 로고·글씨체 개방도

문자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대세 인 지금, 밋밋한 글꼴보다 개성 강한 글꼴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은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글꼴을 적극적으로 수 용한다. 아무래도 호의적인 브랜드의 서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브랜드

고유의 서체 를 빈번하게 접하면서 호감과 연결 감은 더욱 커지

게 된다. 무료로 배포된 서체는 TV 프 로그램 자막, 도서 표지 등에도 사용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알리고 친숙감 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효과적이다.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브랜드 사칭 을 우려해 사용을 철저하게 제한하던 브랜드 관리 원칙이 조금씩 허물어지 고 있다. 과거에는 반소비 단체와 행 동주의 예술가들이 건강과 환경을 해 치거나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업을 비 난하는 패러디 속에서 브랜드를 뒤트 는 재밍(jamming)을 주도했다면, 이 제는 기업이 앞장서서 로고나 글씨체 를 개방해 고객의 일상 속에 자리 잡 게 한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브랜드 관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여유로움과 자신 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친근하고 위트 있는 모습으로 브랜드 팬덤을 강화하 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오랜 전통 을 지닌 기업이라도 과거 관습에 얽매 여 경직된 이미지가 각인되면 시장에 서 외면받게 된다. 소비자와 함께 브 랜드 원칙 파괴를 즐기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이케아처럼 신선함과 젊음 을 유지하는 나름의 노하우를 찾아야 최순화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 1면 '나스닥'에서 이어집니다

건의 종류는 비슷해 까다롭기는 마 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찬가지다. 반면 나스닥은 상장 요건을 인 '나스닥 캐피탈 시장'엔 최근 회계 8곳은 올 1월 말 기준 주가가 공모가 닥에서의 흑역사와, 막대한 상장 유지 연구위원은 "나스닥은 상장에 관대

연도 세전이익 50만 달러(약 6억9000 만원), 상장주식 시총 5000만 달러(약

3단계로 세분화해 기업의 진입 자체 증시의 저평가)를 피하기 위해서다. 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전 복되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 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써야 한다" 가 더 쉽다.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 한국내 상장한 유니콘 기업 10곳 중 문가들은 한국내 기업들이 과거 나스 중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고말했다.

를 밑돌았다. 이후 정부가 가동한 기 비용 등 단점을 뒤로하고 나스닥 상장 코스닥은 이보다 기준치가 낮지만 요 69억원), 공개주식 100만 주 등을 충 시는 뚜렷한 상승세 없이 지지부진 으로보고 있다.

하면서도 시장 관리엔 철저하고, 전 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한국내 증 을 추진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날 것 세계의 혁신기업들을 위한 증시라는 정체성도 확립된 선진 증시의 전형" 일각에선 이런 '이탈'로 한국내 증 이라며 "한국내 증시가 저평가 요인 넷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내 이와 달리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 시의 흥행 요소가 줄면서 침체도 반 을 줄이면서 규제들도 완화해 더 많

이창균 기자



연준 '연착륙' 자신감 … 4분기까지 '랠리' 가능성

6월 시장환경 분석

5월은 4월의 조정국면 이후 회복세를 지속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덕분에 주요 주가지 수들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9월에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진 상태 다. 현 상태에서는 향후 시장환경에 대 해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다. 물론 연 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 시장의 판 단이 성급한 것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보인 시 장의 상승세는 상당한 모멘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통화정책과 경 기지표 등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 상승 장세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에 무게 가더 실린다.

▶상승·하락장세 요인

우선 상승장세 요인으로 S&P 500 의 모멘텀이 상당한 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들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15일 5300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했다. 지수 값이 '21일 이동평균선' 위 로 올라선 것 역시 단기 상승장세 지속 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또한 미국 주식 에 대한 매수세가 매도세에 비해 강하 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분명 상승장 세 지속 요인으로 읽을 수 있다.

4월 중반까지 시장의 하락세를 가리 키던 옵션 시장이 4월 말이 되면서 상 승세를 예고하는 쪽으로 바뀐 바 있 다. 이 추세는 5월에도 계속됐다. '콜 (call)'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반면 '풋 (put)'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다. 투자자 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장세 지속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 할수있다.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도 지 난 4월 19일 고점 이후 5월 중 큰 폭으 로 내렸다. 그만큼 현재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돼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VIX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일 반적으로 상승장세가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혼조세로 출발한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주식시장은 물가 하강 곡선, 경기 연착륙 기대 고금리로 주택가격 계속 상승, 거래량 감소 추세

적 장기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는 점은 리스크다. 채권수익률 곡선 의 역전으로 불리는 현상인데 이런 상 황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경 기를 예고하는 것이다. 시중의 통화량 이 감소하는 추세도 부정적 요인이다. 연준이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이겠다 고 최근 발표했지만, 감소 추세가 달라 지진 않았다. 현재의 긴축기조가 전향 적으로 선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 될 흐름이다. 그만큼 경제활동이 위축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플레이션

4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4%, 핵 심지수는 3.6%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사실상 미미한 하락 폭임에도 시장은 이를 매우 반겼다. S&P 500과 나스닥이 이 발표 후 곧바로 사상 최고 치를 경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3~4% 선에서 더는 추가 하락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 돼 왔기 때문에 소폭 하락도 그만큼 반 가운 소식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여전히 차이가 크다. 물가지수 추이를 제대로 읽으려면 전 체 추이와 함께 항목별 추이를 보아야 반면 현재 단기 채권수익률이 상대 한다. 그리고 항목별 가격 추이가 소비

자의 지출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 에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냉동 주스와 음료수는 전년 동기대비 29.2% 큰 폭으로 올랐지만,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에 주는 타격은 상대적으 로 적은 것이다. 반면 22.6% 오른 자동 차 보험료는 분명 부담스러운 물가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더 힘든 부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고금리가 물가의 '스티키'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JP 모건이나 블랙락의 고 위 관계자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이미 재산이 있던 이들에게는 고금 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려주 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위험 자산의 리스크 없이 벌수 있는 수익률 이 5%대에 달하는 데다, 주식시장 역 시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고소득자들 은 모기지 이자는 낮고, 투자나 이자수 익은 높은 환경에서 더 부유해지고 있 다는 결론이다. 이 소비그룹에는 그래 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부담스 럽지 않은 상황이다.

지출 부담이 덜하고, 오히려 서비스 분야에서는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논리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고금리로 인한 폭은 물론, 이와 같은 기타 요인들의

지출부담 압박을 더 강하게 받고 있 다. 연준이 발표한 올 1분기 자료에 따 르면 현재 카드빚에 대한 이자는 평균 22.63%에 달하고 있다. 살인적인 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소득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카드로 필요 한 지출을 대신하게 되는 데 이자마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고물가와 고금리 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 강 곡선을 그릴 것이고 경기는 '연착 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양극화 현상과 물가 상승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경 청할 필요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시장 다이내믹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관점들이기 때문이다.

▶금리

최근의 주택판매 추이 데이터는 주 거용 부동산 시장의 약세를 말해주고 있다. 집값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전년에 비해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지 만, 거래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기 때문 이다. 이런 현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고금리로볼 수 있을 것이다.

연준의 기준 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은 모기지 금리는 현재 주택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장애물 로 작용하고 있다. 모기지 금리는 비록 연준의 기준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 직이기는 하지만 그 변화 속도는 더디 다. 예를 들어 연준의 기준 금리는 지 난 2020년 초 제로금리를 찍었지만 모 기지 금리는 그보다 1년여 뒤인 2021년 1월에야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국 연준 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도 모기지 금리에 반영되려면 2025년 하반기나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조 정폭도 기준금리 조정폭과는 다를 수 있다.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뿐만 아 니라 다른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방향성만 같을 뿐 시기와 폭 은 다른 것이다.

모기지 금리와 주택시장은 수급 상 황과 고용시장 환경, 인플레이션, 경기 성장, 기대금리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 향을 받는다.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이다.

현저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주택 거래는 당분간 활기를 띠기 어려울 수 있다

≫연준

연준은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소 화했다. 지금까지는 확인된 대로 금리 인하는 없었다. 오는 6월 12일에 있을 회 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 로 예상한다. 2차 '경제전망 요약'이 발 표되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연준의 경 제전망 요약은 올해 금리인하 횟수와 폭을 시사할 것이고, GDP 성장률, 예상 실업률 등에 대한 전망치도 담게 된다. 이들 데이터는 연준이 현재 미국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 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6월 회의는 또 경기현황과 전망에 대한 중앙은행의 인식을 엿볼 기회가 될 것이다. 파월 의장이 경기불황 없는 인플레이션 단속에 성공하는 '연착륙' 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면 시장은 최 소한 4분기까지 '랠리'를 이어갈 가능 성이 높다. 반대로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사하거나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갑 작스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 시장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CME그룹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9 월에 0.25%, 12월에 0.25% 두 차례 연 래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런 예상 시나리오는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고용시장 환경, 기타 경기지표들에 따라 언제든 바뀔수있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 을 것이다. 연준은 어찌 됐든 당분간 모든 시장참여자의 집중관심의 대상

현재 시장환경은 상승장세가 우세 하다. 연준의 6월 회의는 3분기 상승장 세 지속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 로 보인다. 연준의 정책 행보와 경기지 표, 지정학적 긴장 상황 등 다양한 리 스크 요인들이 있다. 이들 리스크 요인 들을 지속해서 모니터하며 포트폴리 오 운용에 능동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l출발 중앙일보가 함메합니다.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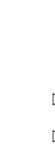
변호사 Dan D. Park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401(k) 자산 배분

은퇴계좌자산주식, 채권등나눠투자 리스크 감내도 반영한 배분 전략 세워야

하는 데 있어 자산 배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산 배분이란 은퇴 계좌의 자산을 주식, 채권, 현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 려사항 중 오늘은 자산 배분을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5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1, 나이 따라 자산 배분 조정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시장 변동성은 큰 문제 가 될 수 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 가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자산군인 채권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50 대에는 주식 60%, 채권 40%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은퇴 후에는 주식 50%, 채권 50% 혹은 주식 40%, 채권 6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나누는 것이 좋다.

401(k) 같은 은퇴연금 계좌를 효과적으로 관리 방식일 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개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따라 투자 방식 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유하고 있 는 자산이 어떤 종류인지, 은퇴 후 필요한 자산인 지, 아니면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인지에 따라 투 자 전략이 다를 수 있다.

2. 개인 리스크 감내도 고려

100의 법칙(나이를 100에서 뺀 비율을 주식에 투자)이나 110의 법칙(나이를 110에서 뺀 비율을 주식에 투자) 같은 나이 기반 지침이 있지만, 개 인의 리스크 감내도 역시 중요하다. 나이와 상관 없이 본인의 리스크 감내도를 반영한 배분 전략 을세워야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 고 있으며, 시장 사이클 동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주식을 사도 좋다. 반면, 25세라 도 시장 조정이 두렵다면 주식과 채권을 50/50으

3. 주식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혹을 느끼기 쉽지만, 이는 실수이다.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된 자산 배분 전략을 따르 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주식 시 장이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고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 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자산 클래스 내 다양화

주식, 채권, 현금 간뿐만 아니라 각 자산 클래 스 내에서도 다양화해야 한다. 많은 경우 여러 개 의 뮤추얼 펀드와 ETF로 나누어 투자한다고 하 지만, 알고 보면 한 섹터에 집중된 경우가 종종 있다. 주식의 경우, 한 섹터에만 집중하지 않고 유 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기술, 금융 부문 등 다양한 섹터에 걸쳐 배분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경제 사이클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고, 포 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채권 펀드에 투자하여 채 을 적극 추천한다.

권 보유를 다양화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의 만기 시장이 좋을 때 더 많은 주식을 사고 싶은 유 와 유형에 따라 보유를 분산하는 것이 좋다. 지방 채, 정부채, 회사채 등을 보유한 ETF에 분산 투 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타깃데이트 펀드 활용

자산 배분 관리가 어렵다면 타깃데이트 펀드 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타깃데이트 펀드는 여 러 자산 클래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목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보수적인 배분으로 이동하 는 뮤추얼 펀드이다. 목표 날짜는 펀드 이름에 어 급되어 있으며 본인이 은퇴할 계획인 연도를 나 타낸다. 예를 들어, 2055 펀드는 2055년에 은퇴할 계획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타깃데이트 펀드는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 최 선의 방법과 나이를 고려한 배분을 따른다. 그러 나 타깃데이트 펀드는 개별 리스크 감내도나 상 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 목표, 위험 감수 성향,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재 정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하는 것

기후 변화

투자의 경제학



는 얘기를 들었다.

회사도 있다.

김세주

보험회사로부터 주택 보험 취소 통지를 받았다

자초지정을 듣다보니 취소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보험사의 목적은 보험 취소지 어

는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비즈니스를 접고 있는

떤 시정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사는 지인이 최근 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는 물가상승을 포함 한 복합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들었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에 대한 위험으로 추정된다.

매사추세츠주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넨터켓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사들이 주택 보험을 더 바닷가의 한 주택은 지난해 220만 달러에 매물로 내놨던 집을 60만 달러에 매각을 결정했다.

이런 파격적인 가격 하락의 이유는 기후변화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에 이 로 인한 해안 침식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소유주 보험을 제공하지 않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위기의 하나가 되 는 것으로 보도됐다.

었다. 이런 기후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상 당하기 때문에 증권감독원(SEC)은 최근 기업들 이 기후 관련된 사안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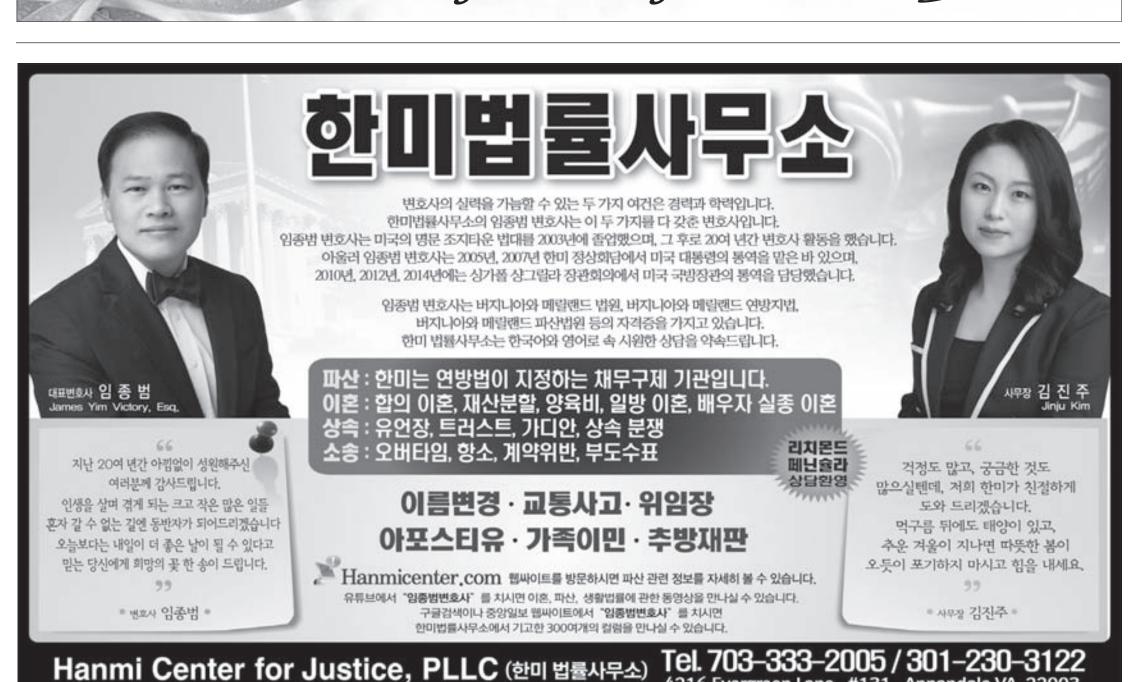
지 보류 중이긴 하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로이 터 통신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 지고 있어 1997년도에 기후로 인한 손실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기후파생상품(weather

일반 투자자들도 기후 관련 투자가 가능한 ETF(Exchange Traded Fund)도 분야별로 다 양하게 거래되고 있다. 기후 관련 펀드 규모도 세 계적으로 2023년도에 5억 달러를 초과했다. 펀드 이 보고 의무는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 분석 업체 모닝스타(Morningstar)에 따르면 다 양한 전문 분야의 기후 관련 펀드가 존재하고 있 어 투자자들이 포괄적인 투자전략과 전문분야 (예:재생에너지, 카본감소,기후적응 등) 전략 반 영이 가능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 게 되면서 엘니뇨의 끝자락이 어떤 문제를 야기 어 최근에는 토키오 마린과 트랜스 퍼시픽사가 기후변화는 더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derivatives) 거래량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하고 있 시킬지 모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포트폴리오 대비책도 미리 준비해 놔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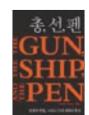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이 위성탄 중앙일보

至是时刻! 至是似是! 子时到些



근대의 전쟁과 무력 통해 확산한 헌법



총, 선, 펜 린다 콜리 지음 김홍옥옮김 에코리브르

성문 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 서 공기나 물 같은 자유재로 대접받는 다. 희소성도 없고, 대가 없이 얻은 것 이라 귀한 줄도 모른다.

미국 프린스턴대 역사학 교수인 지 은이는 성문 헌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 진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조문으로 구 성된 헌법이 해당 국가의 내부 당사자 는 물론 수많은 국가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장구한 세월 동안 경험 이 축적돼 형성됐다고 강조한다. 특히 숱한 폭력과 전쟁이 성문 헌법이 제정. 개정되고 확산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하다.

1755년 코르시카의 민족주의 지도 자 파올리가 이탈리아의 제노바 공화 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만든 최 초의 성문 헌법부터가 그렇다. 헌법 조 문에는 '코르시카의 적법한 주인으로 서 국민의 의회' '의회는 코르시카의 자유를 재정복하고, 국가의 복지를 보 장하기에 적합한 헌법을 제정' '정부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를 부과 하려는 바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늘 날엔 지극히 당연시되는 공화제와 민 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삼권분립·법 치를 주장한 몽테스키외나 사회계약 론·인간평등을 앞세운 루소 등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 가 있었다. 파올리는 공화국 최고지도 자인 '장군'으로취임했으며, 무장한시



지난 14일 코르시카에서 열린 나폴레옹 탄생 기념행사 모습. 나폴레옹은 코르시카가 프랑스에 병합된 [AFP=연합뉴스] 이듬해 태어났다.

민이 국가를 방어하고 질서를 유지하 는 체제를 마련했다. 독립국가의 생존 을 위한 군사정치다. 이 헌법은 코르시 카가 프랑스에 패배하고 합병된 1768년 까지 적용됐다.

지은이는 1750년대 이후 유럽은 물 론 전 세계에서 분란과 전쟁의 수준과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세금과 병력이 필요한 각국 정부가 성문 헌법 제정과 수정에 나섰다는 사실에 주목 한다. 프랑스·독일·러시아·이탈리아 등 수많은 유럽 국가가 식민지를 팽창하 고서로세력균형을 유지하려면 총·대 포·군함, 그리고 병력 등 군사력이 필수 적이었다. 이를 위해선 국민 지지와 전 쟁비용, 그리고 인력이 필요했다.

이들 국가는 국가의 최고·기본 규범 인 성문 헌법 제정과 수정을 통해 대중 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모으고 재정 적·인적 수요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 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점령지와 식민 지의 통치를 합법화하고 규율하는 데 도 헌법을 적극 활용한 것은 물론 이를 널리 확산하고 다양화했다. 나폴레옹 헌법 같은 성문 헌법은 국제무대에서 자국 위상을 선전하고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남성들은

높은 세금과 징병을 수락한 대가로 선 거권 같은 특정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 는 사실이다. 정치권력이 소수의 세습 귀족에서 다수의 일반시민에게 넘어가 면서 '민주주의 확산'의 전기가 됐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1850년대 유럽·아메리카뿐 아니라 아시아·아프 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도 병역을 의무 화하는 동시에 성인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헌법이 공포됐다고 지적한 다. 전쟁 수준이 더욱 가속화하면서 과 세·징병을 정치적 권력과 맞교환하는 수준도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 편으로 20세기 초까지 참정권을 확대 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헌법에 매력을 느낀 것은 오스만튀 르크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마찬 가지였다. 오스만튀르크에서 술탄 압 둘하미트 2세의 전제정치를 폐지하고 근대화의 불을 붙인 1908년 청년튀르 크당 혁명의 봉기 명분은 헌법 부활이 었다. 반란 군인들은 술탄에 보낸 최 후통첩에서 "모든 나라에 헌법이 있 다"고 강조했다. 1876년 12월 공포되고 1878년 2월 술탄이 러시아-튀르크 전 쟁을 이유로 정지시킨 헌법은 이렇게 되살아났다. 이처럼 성문 헌법은 18세

기 이후 여러 국가와 대륙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양한 정치적·법적 제도 의 형성과 재편은 물론 사고와 문화적 관행, 그리고 대중의 기대 유형을 변화 시키는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근대 정치사상가 캉유웨이(康 有爲)가 1908년 7월 오스만튀르크의 수 도였던 이스탄불에 도착해 청년튀르 크당 혁명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흥미 롭다. 캉유웨이는 1898년 6월 량치차오 (梁啓超)·탄시통(譚嗣同) 등과 함께 청 나라 황제 광서제를 움직여 헌법 제정 과 의회 구성 등 무술변법을 시도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치·사회 개 혁 운동은 104일 만에 무력을 앞세운 서태후와 위안스카이(袁世凱) 등 보수 파의 무술정변으로 좌절됐다. 개혁과 헌법 제정을 가로막은 이 정변이야말 로 중국을 오랫동안 세계사의 그늘에 가둔 거대한 독초가 아닐까.

지은이는 헌법이 '오류를 면치 못하 는 인간이 창조한 취약하기 이를 데 없 는 피조물'이라고 강조한다. 당대 사람 들의 생각,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제정 되고 개정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성문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효력을 내려면 지속적으로 정치적·법률적 노 력을 기울일 능력과 의향이 뒷받침돼 야 하며, 필요할 때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문 헌법은 조문이 아니라 이를 적용하며 관리하는 정치인·법률 가·시민의 능력 한도 내에서 기능한다 는 지은이의 지적이 울림을 준다. '전쟁 과 헌법, 그리고 근대 세계의 형성'이라 는 부제가 전체를 요약한다. 원제 The Gun, the Ship, and the Pen: Warfare, Constitutions,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워터게이트 33년 뒤 비로소 공개된 비밀



시크릿 맨 밥 우드워드 지음 채효정 옮김 마르코폴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전례 없는 임 기 중 사임을 불러 온 워터게이트 스캔 들. 타국의 오래 전 사건이라 그 전말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두 가지 정도는 연 상이 되게 마련이다. 권력과 연계된 부패 사건에 흔히 붙는 '~게이트'의 원조라는 점, 그리고 복잡한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부고발자를 뜻하는 '딥스로트(Deep throat)'라는 단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칼 번스타인과 함 께집요하게추적한밥우드워드의이책 은 딥 스로트와의 인연과 그를 통해 진 행된 치열한 취재, 그리고 그의 정체가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사건 당 시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가 1972 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33년만인 2005년에 자신이 딥 스로트임을 밝힌 직 후출간됐다.

밥 우드워드는 처음부터 펠트 본인이 인정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 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하고, 그 약속 을 지켰다. 자신이 딥 스로트라는 점이 공개되면 몸담았던 FBI에 누를 끼치거 나,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펠트의 엄격한 요구 때문이었다.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선 취재원을 절대 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저널리즘 원칙 때문이기도 했다. 책의 흐름이 워터게이 트사건의 진행과 보도 과정을 촘촘하게 따라가다 보니, 무수한 관련 인물의 이 름이 쉴 새 없이 등장한다. 또 글의 상당 부분은 권력의 오만한 모습을 파고드는 언론의 역할과 취재원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 현대 정치나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다면 더 흥 미롭게 읽을 수 있다.

한편의소설처럼읽어내려가면또색 다르다. 군 전역을 앞두고 불투명한 미래 를 고민하던 20대 청년 장교가 권력의 정 점을 눈앞에 둔 50대 중반의 FBI 고위 간 부와 우연히 만나는 과정부터 극적이다. 바로몇년뒤워터게이트스캔들이터지 자, 신문사의 신참 사회부 기자와 FBI의 2인자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비밀스럽 고 기발한 방법을 통해 '접선'을 이어가 는 과정은 스릴이 넘친다. 무엇보다 50대 중반의 우드워드가 인지 장애로 기억을 잃어가는 노년의 펠트를 다시 만나 대화 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사건과 인물이 책과 영화 등으로 계속 재창조되는 이유일 것이다. 이승녕 기자

책꽂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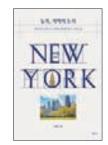
나들 잦아 떠나는 여행 (김송분 지음, 올댓 북)=해학과 풍자로 인간의 존엄을 주제로 다루며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써온 작가의 세 번째 책. 소재는 동물뿐만 아니라 공구. 주방용품까지 다양하다. 기존 동화를 뒤집 은 '토끼와 거북이', 차이와 차별을 돌아보 게 하는 '입 큰 개구리' '세상의 반쪽, 나 세모'등 가볍고 속도 빠른 단편 37편이 실



옮김, 윌북아트)=영화 '문라이즈 킹덤' 법'은 어린 시절 웨스 앤더슨이 집에서 발 견한 팸플릿이었다. 뚜렷한 개성과 미학 의 감독으로 성장한 그의 영화를 '바틀 로켓'부터 '프렌치 디스패치'까지 영화 스틸, 현장 스틸 등 시각 자료와 함께 조 명한다.



미국의 상페 (장 자끄 상페 지음, 양영 란 옮김, 미메시스)=지난해 이맘때 89 에 나오는 '지독한 말썽쟁이 아이 다루는 세로 별세한 상페가 미국을 여행하 며 그린 그림들을 담았다. 프랑스 렉 스프레스 소속으로 1969년 아폴로 발 사 취재 때 그린 그림, 그가 그린 뉴욕 타임스 광고, 그를 기리는 기자들의 글 도 실려 있다. 뉴요커 표지 그림을 모은 『뉴욕의 상페』 개정판도 함께 출간됐다.



뉴욕, 기억의 도시 (이용민 지음, 샘터)=현 대 도시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미 국 도시 뉴욕이 어떻게 지금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그 역사부터 시작해 곳곳의 명소 들, 그리고 새로운 상업시설들이 지닌 건축 적 특징 등을 조명한다. 뉴욕은 건축을 전 공한 저자가 4년간 살았던 곳. 전문적 지식 을 포함해 폭넓은 정보를 어렵지 않게 풀어

A 지금 연락 주세요!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체 보험

직장상해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은퇴연금

703-537-9899 **1703-591-0009**

마루마 보이로 한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 저렴한 보험료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Partner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리움미술관 '필립 파레노:보이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미술관에 전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서히 녹아내리는 눈사람, 거기서 똑똑 떨어 지는 물방울 소리라면 시간을 가시화 할 수 있을까.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필립 파레노: 보이스(Voices)' 전시의 한 장면이다. 알제리계 프랑스 미술가 파레노(60)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전시를 만들기로 이름났다.

이렇게 전시에 '생명'을 주려면 손이 많이 간다. 전시를 위해 고용된 아르바 이트생 A씨 일도 그렇다. 그는 지난 2 월 말 전시 개막 때부터 넉 달째 매일 아침 미술관에 출근해 빙수 기계로 얼 음을 갈아 6개의 눈사람('리얼리티 파 크의 눈사람')을 만든다. 파레노 스튜 디오에서 제작해 온 눈사람 틀에 흙도 넣고 갈아낸 얼음도 넣어 흙 묻는 눈사 람을 찍어낸다. 전시장을 떠다니는 물 고기모양풍선('내방은또다른어항') 에 헬륨 가스를 넣고, 지하 전시장 천장 에 붙다시피 한 투명 말풍선들도 쭈그 러들 조짐이 보이면 헬륨을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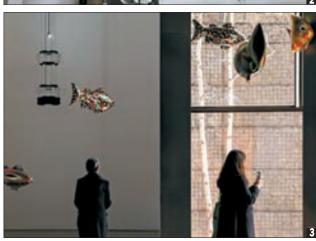
흔히 미술은 회화나 조각 같은 시각 예술 또는 공간예술로 여겨지지만, 파 레노에게 전시는 시간의 예술이다. '리 얼리티 파크의 눈사람'은 1995년 일본 도쿄의 한 공원에서 첫선을 보였다. 점 심시간마다 공원에 모여 식사하는 회 사원들을 눈여겨본 파레노는 매일 그 시간에 맞춰 눈사람을 갖다 놓았다. 녹 아내리는 눈사람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줬다.

아르바이트생만이 아니다. 전시 제 목처럼 여럿의 목소리를 한 공간에 집 결시키며 미술관 전체를 하나의 거대 한 설치작품으로 만든 이 전시에는 그 래픽 디자이너·사진가·음악가 외에도 인공어를 만든 언어학자, 목소리를 제

눈사람 녹는 게 작품 시간을 느껴보세요







■ 서울 리움미술관에서는 매일 흙 묻은 눈사람 6개가 서서히 녹아내린다. 필립 파레노의 '리얼리티 파크의 눈사람'이다. 🛛 전시장 천장에는 투명 말풍선 들이 붙어 있고 🛭 물고기 모양 풍선이 떠다니며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공한 배우 배두나 등이 협업했다.

전시는 미술관 앞마당에 설치한 기 계탑 '막(幕)'부터 시작된다. 기압계・ 온도계·지진계가 촉수처럼 설치돼 주 변 환경 요소를 데이터로 변조, 내부에

전시된 미디어 아트를 작동시킨다. 이 에 따라 자동 피아노가 연주되며, 오렌 지색 인공눈이 내리고('여름 없는 한 해'), 시계태엽이 돌아가고, 벽이 움직 이고, 전등이 깜빡거린다('깜빡이는

불빛 56개'). 전시를 위해 방문한 파레 노는 "미술관은 외부 세계를 향해 등 돌린 닫힌 공간이다. 값비싼 작품이 전 시돼 있기에 일종의 버블 같기도 한 이 공간에 틈을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늘날 미술 전시를 유지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설 치와 퍼포먼스로 작가의 개념을 시각 화하는 현대 미술은 전시 개막과 동시 에 새로 시작이다. 소장가들에게서 그 림을 구해다 걸거나 조각을 골라 놓는 준비가 대부분인 근대 미술과 다른 점

지난해 리움미술관 개관 이래 최다 인 25만 관객이 몰린 마우리치오 카텔 란(60) 회고전에 걸린 '코미디언'도 그 랬다. 벽에 테이프로 붙인 바나나가 전 부인 작품인데, 미술관은 6개월 가까 운전시 기간 내내 사나흘마다 새 바나 나로 교체했다. 미술 시장에 대한 도발 을 상징하듯 2019년 아트 바젤 마이애 미에서 첫선을 보였고, 12만 달러(약 1 억5000만원)에 판매되며 '역설'을 완 성했다.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1957~96) 의 '무제(플라시보)'도 그렇다. 은색 셀로판지로 싼 사탕 500kg을 사각형 으로 깔아둔 이 작품은 관객이 사탕 을 집어가는 순간 완성된다. 관객들이 사탕을 집어 먹으면서 사각형은 서서 히 마르고, 흐트러지고, 없어진다. 전 시 기간 내내 사탕을 다시 채우는 건 미술관 몫이다. '위약'(가짜 약)이라는 의미의 부제로 작가는 에이즈 환자 수 천 명이 사망하고서야 시작된 미국 정 부의 뒤늦은 임상시험을 겨냥하는 한 편 탄생과 소멸의 인생사를 달콤하게 은유하다.

리움미술관 최대 규모이자 최대 예 권근영기자, [뉴스1] 산이 투입된 파레노의 중간 회고전에 는 12만 가까운 관객이 다녀갔다. 베 니스 비엔날레에 7번 초대되며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미술 작가로 꼽히는 그의 작품은 퐁피두센터, 구겐하임미 술관, 뉴욕현대미술관(MoMA) 등이 소장하고 있다. 권근영 기자

깜깜한 공연장, 눈 감고 온몸으로 즐기는 이야기

"바다 위에 둥실 떠 있는 두 대의 슈퍼 카. 오른쪽 차는 반짝이는 핫핑크색, 왼쪽 차는 불꽃 같은 빨간색이다. 핑크 색 슈퍼카가 바다 위에 반원을 그리고 끼이익 정지한다. 그에 질세라 새빨간 차도 앞으로 뒤로 옆으로 묘기 하듯 빠 르게 미끄러진다. 바퀴 옆으로 바닷물 이 튀어 오른다. 더 빠르게, 더 우아하 게, 더 멋지게, 더 높게!"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어두운 공연장. 방석을 베개 삼아 누운 관객들

슈퍼카 두 대가 바다 위에서 레이싱하는 는 공연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청각과 꿈이다. 황혜란의 내레이션 위로 여러 촉감 등 온몸으로 공연을 느낄 수 있도 소리가 겹친다. '끼이익' 자동차의 급정 거 소리, '철썩' '쏴아아' 파도 쏟아지는 소리, '또르르' 물방울튀어 오르는 소 리, '우우웅' 전진하는 엔진 소리… 눈을 감았지만, 소리만으로도 청량하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은 없을까. 23일 끝난 모두예술극 장의 기획 공연 '어둠 속에, 풍경'은 이

이 배우 황혜란의 꿈이야기를 듣는다. 런 질문에서 시작했다. 시각에 의존하 록 만든 실험적인 공연이다. 서울 서대 문구 모두예술극장은 국내 유일 장애 예술인 공연장이다.

> '어둠 속에, 풍경'은 공연과 전시가 합쳐진 형태다. '휴먼 푸가' '스트레인 지 뷰티' '우주 양자 마음'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실험적인 예술을 선보 여 온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연출가

배요섭이 극을 만들었다. 무용가 밝넝 쿨, 배우 황혜란, 디자이너 기비안 등 비시각장애인 5인과 특수교사 구예은, 촉각 도서 작가 박규민 등 시각장애인 5인의 퍼포머가 출연했다.

공연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수많 은 문장과 점자가 쓰인 거대한 원기둥 이 보인다. 퍼포머 10인의 꿈을 글과 점 자로 풀어놓은 '꿈 주석' 전시다. '시각 장애인은 어떻게 꿈을 꿀까'라는 호기 심에서 출발했다. 희미한 빛도 보지 못 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의 꿈은 주로 대 화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기둥에 쓰인 '완만하다'는 '조금씩 서서히'라는, '화

려하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최신음 악이 들려오는 거리의 느낌'이라는 뜻 이다.

'소리그림'은 만지고 듣는 전시다. 몇 점의 추상화 옆 헤드폰을 쓰고 그림을 손으로 더듬으면 작업 현장에서 녹음 된 소리가 헤드폰으로 흘러나온다. 작 업 현장의 분위기를 짐작게 하는 발랄 한 소음과 작업 도구의 질감을 담은 소 리를 들으며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온 그림을 손끝으로 느낀다. 배요섭 연출 은 "저마다 다른 각자의 감각으로 마 음을 열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길 바 랐다"고말했다. 홍지유 기자

악착같은 부동산 出刊出



비엔나 타운홈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타운홈 방3+화3,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630,000

실력 최고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帅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D.C., 메릴랜드 / 301-399-0140 HXLO / 703-863-0321



- 투자이민 (EB-5) - NIW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취업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 간호사(RN)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48년 만에 최소 규모 한국, 양궁·펜싱서 금 5개 이상 기대

100년 만에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 리는 하계올림픽 개막이 한 달여 앞으 로 다가왔다.

2024 파리 올림픽은 현지시간으로 7 월 26일 개막해 8월 11일까지 열린다.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개최되 는 것은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이번 이 100년 만이자 세 번째다. 직전 올림 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정 보다 1년 늦은 2021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의 무관중 대회로 진행됐다. 따라서 올 해 파리 올림픽은 하계 대회 기준 2016 리우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관중이 함 께하는 올림픽이다.

금10-10위 목표 험난한 레이스 예고

올해 파리 올림픽은 총 32개 종목에서 32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이 벌어진다. 한국 선수단은 최근 하계올림픽마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 순위 10 위 안에 드는 '10-10'을 목표로 삼아왔 지만, 이번 대회에선 험난한 메달 레이 스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수단 규모가 여느 대회보다 작다. 태극마크 를 달고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는 200명을 밑돈다. 단체 구기 종 목에서 집단 부진을 보였기 때문이다. 올림픽 출전을 확정한 단체 구기 종목 은 여자 핸드볼뿐이다. 대한체육회가

예상하는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 최대 치는 170~180명 수준이다. 이는 50명 을 파견한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48년 만의 최소 인원이다. 한국 선수단 은 이번 올림픽에서 현실적으로 금메 달 5~6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하다

대한체육회가 파리에서 확실하게 금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은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양궁과 2000년대 들어 신 흥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펜싱이다. 양 궁은 종목에 걸린 금메달 5개(리커브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전) 중 3개 이상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 다. 특히 1988 서울 올림픽부터 단 한 번도 정상을 놓치지 않은 여자 단체전 에서는 10연패 달성을 노린다. 여자부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과 남자부 김우진(청 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 오롱)으로 구성된 양궁 대표팀은 기대 에 부응하기 위해 6월 말부터 남한강 변 부지에서 '강바람 특훈'으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선다. 양궁 경기가 치러지 는 파리의 앵발리드 광장 북쪽 잔디 공 원이 파리를 관통하는 센 강변과 인접 하기 때문이다.

펜싱은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에 서 금메달 2개 이상을 바란다. 남자 사 브르는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한다. '어 양궁 여단체 10회 연속 우승 노려 센강 옆 경기장 대비 강바람 특훈

남펜싱 신구 조화 '어펜져스 2기' 구본길 "개인·단체전 싹쓸이 목표"

황선우·우상혁·안세영도금빛꿈 박태준 K태권 자존심 회복 별러

펜져스(펜싱+어벤져스)'로 세계를 호 령한 남자 사브르는 이번 올림픽을 앞 두고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도쿄 올림 픽을 비롯해 기존 주축 멤버로 활약해 온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구본길(국 민체육진흥공단)에 특급 신예 박상원 (대전광역시청), 도경동(국군체육부 대)이 가세해 '어펜져스 2기'를 꾸렸다. 대표팀 맏형 구본길은 "개인·단체전 금메달을 모두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여자 에페는 도쿄 올림픽 단체 전 은메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 메달을 합작한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이혜인(강원도청),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청), 최인정(계룡시청)으로 멤버 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 선수단은 유도·수영·배드민턴· 태권도에서도 각각 1개 이상의 금메 달을 희망하지만, 장담할 순 없는 상 황이다. 올림픽에서 최근 2회 연속 '노 골드' 수모를 겪은 한국 유도는 다행 히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지난달 세계선수권에 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유명한 허미미(경북체육회)와 '남자 최중량 급 간판' 김민종(양평군청)이 각각 여 자 57kg급과 남자 100kg 이상급(최중 량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 국 여자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 달을 딴 건 29년 만이었다. 남자 최중 량급에서 금메달이 나온 건 무려 39 년 만이었다. 세계선수권 남녀 동반 금메달 소식에 유도 대표팀은 올림픽 에서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의 금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황희태 남자 대표팀 감독은 "이번에 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한국 유도는 완전히 추락한다. 수사불패(雖死不敗・ 죽는 한이 있어도 지지는 않겠다) 정신 으로 올림픽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영에선 간판 스타 황선우(강원도

청)가 '금빛 물살'을 가른다. 황선우는 남자 자유형 200m에서 다비드 포포 비치(루마니아), 매슈 리처즈(영국) 등 독립운동가 후손 허미미 금빛 메치기 라이벌과 금메달을 다툰다. 또 다른 수영 스타 김우민(강원도청)은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꿈꾼다. 배드민턴의 안세영(삼성생명)은 1994 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시상 식에서 태극기를 가장 위에 거는 꿈을 꾼다. 태권도에선 남자 58kg급의 '신형 태권V' 박태준(경희대)이 '종주국'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각오다. 한국 태 권도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 1 개, 동 2개에 그치며 '노 골드'에 머물 렀다. 한국이 올림픽 태권도에서 금메 달을 따지 못한 건 정식 종목으로 채택 된 2000 시드니올림픽 이후 그때가 처 음이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 '스마일 점퍼' 우상혁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2m 26·결선 진출 실패), 2021년 도쿄(2m 35·4위) 대회에 이어 세 번째 올림픽 무대인 파리에서 고대하던 메달 획득 에 나선다. 우상혁은 "리우에서는 올 림픽 출전 자체에 의의를 뒀고, 도쿄에 서는 세계 정상권에 진입한 것에 만족 했다"며 "파리에서는 무조건 메달을 따낼 것"이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피주영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1920년 취운정에 경성 첫 도서관 "유길준 '서유견문' 낳았다

지식은 인류의 오랜 삶 속 경륜으로 쌓이고 또 쌓 인다. 급기야 인쇄술의 발전을 거쳐 책으로도 긴 축적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그 지식은 권력을 쥐거나 그에 가까웠던 계층의 전유물과 다름없 었다. 근대는 그런 두텁게 쌓인 인류 지식의 접변 (接邊)이 일반인에게 널리 퍼지는 과정과 함께 닥친다. 그 매개는 바로 '도서관'이다.

식민지 초기 경성에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은 없었다. 문맹률이 높아 이용할 사람도 적었기 때 문이다. 그나마 3·1운동 이후 학교 진학률이 높 아져 문맹이 줄어들고 도서관의 필요성도 높아 졌지만, 공공도서관 성격의 대중 도서관은 없었 고 소위 '종람소(縱覽所)'라고 하여 신문이나 잡 지 열람소만 있었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독서회 나 야학이 성행했다. 그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 이 개화파 윤치호가 1904년 8월 남문 밖 약현동 에 세운 신문종람소다. 그는 이때 교육사업과 병 행해 소규모 도서관 사업을 추진했고, 1906년에 는 대한도서관 설립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조선인에 의해, 경성에 세워진 제대로 된 사립 도서관이 처음 들어서는 때는 1920년 11월 5일이 다. 위치는 종로구 가회동의 조선귀족회 소유 취 운정(翠雲亭)이다. 윤익선·윤양구·김장환이 주 도했고, 관장은 김윤식이 맡았다. 매일신보에 따 르면, 1920년 11월 27일 개관식에 내빈 300명과 학생 수천이 참석했다.

고종, 서구 문물 소개책들 집옥재 보관

이 도서관은 민지(民智)의 계발에서 더 나아가 민족운동의 기지로 쓰이기도 했다. 취운정은 박 규수를 비롯한 김옥균·박영효·홍영식·서광범·서 재필·유길준 등 개화파가 탄생한 산실이기도 했 다. 또 이 장소는 갑신정변이 구상된 곳이며, 해외 에서 귀국한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저술한 곳 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은 1 년도 지나지 않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범 승이 종로 탑골공원 서편에 세운 새로운 경성도 서관의 분관으로 존속하다 폐관하고 말았다.

이범승은 친일파이긴 하나 일제강점기 공공도 서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1921년 9 월 일본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으로 돌 아와 조선총독부로부터 종로2가 탑골공원 서문 일대 부지 531평과 이왕직 양악대(洋樂隊) 건물 을 빌려 새로운 경성도서관을 설립했고, 이후 민 영휘의 도움을 받아 130여 평 규모의 석조 2층 양 옥 신관을 개관했다. 현재는 인왕산 아래 서울시 교육청 종로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100년이 넘 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고종은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덕수궁 주변 정 동에 집착했다. 20세기 후반 외교 공관과 선교사 들이 대거 입주하며 일종의 서양인촌을 형성한 이 지역에서 좀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종은 정동 덕수



집옥재와 팔우정. 왼쪽에는 서고인 팔우정, 오른쪽에는 이층 복도로 연결된 경복궁 집옥재가 있다. 집옥재는 현재도 시민들이 이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 중이다.

궁으로 이전하기 전 서구 선진 문물을 소개한 서 책들을 왕조 도서관 역할의 규장각으로부터 수 집해 집옥재(集玉齋)에 보관했다. 집옥재는 지금 도 경복궁 향원정 북쪽에 있다.

이후 고종이 정동 덕수궁에 기거하면서 그후 면에 지은 도서관이 바로 '황제의 도서관'으로 불리는 중명전(重明殿)이다. 중명전의 원래 이름 은 수옥헌(漱玉軒)으로 1899년 한성부 건축기사 로 초빙된 미국인 다이(J. H. Dye)의 설계로 1층 서양식 건물로 지어졌다. 1901년 11월 화재로 전 소되자 이듬해 회랑이 있는 2층 건물로 재건축 되었다. 고종은 이처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정 동 주변, 열강의 공사관 한복판에 집무실 겸 '황 제의 도서관'을 세워 위엄을 높이려고 했지만, 이 도서관은 나중 대한제국의 국권을 넘겨준 을사 늑약 체결의 장소로 쓰였다.

한편 정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금의 종로 4 거리(현 영풍문고 언저리)에 '한성감옥서'가 있 었고, 여기에는 '박영효 일파의 대한제국 고종 폐 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구한말 개 혁파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밝혀진 사실 은 1902년경 이 한성감옥서에 수감된 개혁파 주 도로 옥중도서관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옥중에 서 함께 책을 읽으며 근대적 민주국가 건설을 꿈

꿨다는 것이다.

2022년 3월, 월남 이상재 선생 유족들에 의해 당시 이 한성감옥서에서 작성된 143쪽에 달하는 '옥중도서대출부'가 공개되어 그 목록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책들이 결국 그들이 바라본 세상을 설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한성감옥서 옥중 도서관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놀랍게도 훗날 대 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된 우남 이승만이었다. 한 성감옥서는 이후에도 경성감옥, 서대문형무소, 안양교도소로 그 역사를 이어갔다. 백범 김구도 서대문형무소 내에서 이승만이 설치했던 서적실 장서를 읽었다는 회고를 남긴 바 있으니, 이 땅의 지도자와 함께 근대사 속에서도 도서관이 살아 숨쉰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경성에서 도서관 운영이 그나마 활발해진 것 은 3·1운동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며 일제가 그 동안의 무단정치에서 벗어나 일종의 사상교화를 위한 국가주의 시스템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일제는 국가 중 앙도서관으로서 모든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통 제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설립한다. 일 제는 조선인에 대한 사상 선도를 목적으로 한 조 선신교육령(朝鮮新敎育令)을 발령하고 이에 맞 춰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중구 소공동 6번지에 세

> 호. 2 경성도서관(현 종 로도서관)이 종로구 탑 골공원 서편에 위치했 을 당시 도서관 내부 전 경(1967년 7월 21일자

[사진 국립한글박물관·

우게 된 것이다. 1923년 12월에 본관을 준공했는 데, 전체 대지 면적 1980여 평에 지상 2층, 반 지하 1층 규모였다. 이 본관 건물은 1974년 7월 ㈜롯데 측에 인도될 때까지 조선총독부도서관・국립도 서관·국립중앙도서관의 이름으로 쓰였다. 이 건 물은 지금 사라졌지만 소설가 고 박완서의 작품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가 베스트셀러 가 되면서 그 역사성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박완 서는 해방 전인 국민학교 5학년 때 친구 복순이 와 같이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찾아간다. 그곳에 대한 첫인상이다.

조선총독부도서관, 해방 후 국립도서관

'선생님이 가르쳐준 도서관은 지금의 롯데 백 화점 자리였다. 그때 그 도서관을 우리는 공립도 서관이라고도 했고 총독부 도서관이라고도 했 다. 해방되고 나서 국립도서관이 된 바로 그 건물 이었다. (중략) 안에 충충하게 고여 있는 어둡고 도 서늘한 정적을 훔쳐보는 것조차 두려워서 가 슴을 졸이며 열려 있는 문을 이문 저문 조심스럽 게 엿보고 다니는데 정복을 입은 수위가 달려왔 다. 나는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어쩔 줄 을 몰라 하는데 내 동무는 또박또박 교과서에서 배운 도서관 이용법을 직접 해보려고 왔노라고 말했다.(중략)'

이후 수위의 안내를 받은 박완서와 그의 친구 는 어린이열람실이 있는 '경성부립도서관'으로 향한다. 당시 경성부립도서관은 조선호텔에서 대로변 하나를 대각선으로 건너면 될 정도로 가 까이 있었다. 이렇듯 1920년대에 동명의 여러 '경 성도서관'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도서관과 주요 공립도서관이 대부분 세워졌다. 그 중 경성 지역 도서관은 일제강점기 대표적 도서관으로 가회 동·종로·소공동·정동·용산에 자리 잡았다. 총독 부도서관과 경성의 도서관은 직원이나 장서, 예 산이 가장 많아 위상과 역할에서도 한반도 전체 도서관에 영향을 미쳤다.

재미있는 것은 지리・공간적으로 지금의 정동 과 서울시청을 중앙에 놓고 가회동이나 종로로 이어지며 주로 조선인이 거주한 북촌, 청계천 건 너 일본인이 많이 거주한 소공동과 명동 일대에 서 용산으로 확장해 가는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세워져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이다. 또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인 배재학당 도서실, 고종의 황실도서관 중명전이 경성 한복판에 자리 잡았음을 보면, 이 지역의 도서관 집중 현상은 당대의 통치 전략과 무관하 지 않았다. 결국 일제의 통치에 맞서 구국과 민중 계몽운동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도서관은 그 한계가 분명했지만 그래도 이 땅의 민중이 사회 의식을 갖고 '비판하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조금씩이나마 확보해 간 공간이 아니었 송승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특임교수 을까.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얼티 원 부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

COMING SOOK Rockville

싱글홈, 방5, 화2, 차고2

Cockeysville \$470,000 싱글홈, 방4, 화2.5

\$559,000

SOLD

타운홈, 방4, 화3, 차고2



정직, 신용, 친절로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645,000

Elkridge

\$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방3, 화3, 차고1





고객님을 최유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착마왔습니다



- ◢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 1 서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힏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 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703.825.2945

카 툰 릴 레 이

THE SIXTH 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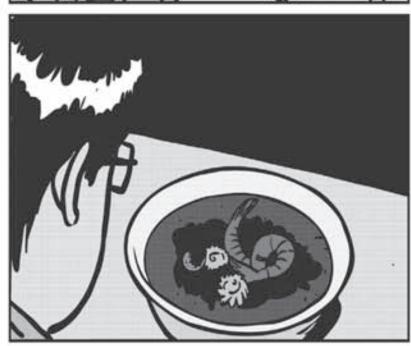
오늘의 주제 **라이벌**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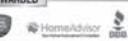
규모가 곧 신용입니디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LENNOX) Carrier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WBS 월드뱅크카드서비스 직위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지휘자 청빙

연합감긴회 워싱톤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구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OTTE G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곿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ュ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지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염가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줄광고가 1 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 로 줄광고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 고는 줄광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권과 관심, 지속적 인이용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골프레슨, 홈 비지니스 등 같은 전문 분야 분들이 공동 광고를 통하여 보다 저 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이미지전달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 자세한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직/세일즈마케팅〉

Graphic Designer: Design graphics to meet specific commercial or promotional needs, such as packaging, displays, or logos. Use common designing programs such as CorelDRAW, QuarkXPress, VCarve Pro, and photoshops & Illustrators. 40 hours/week. Master in Design or Fine arts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HIZ Solution Inc dba HIZ Design & Print or HIZ Creative Design at 7535 Little River Tpke Suite 120C, Annandale, VA 22003

Accountant: Manage daily operations of ledgers such as payroll, billings, accounts payable & receivable, cost allocations; Use accounting programs such as Quickbooks and Pavroll Relief;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40 hrs/week. Bachelor in accounting or Business Administration reg'd. Send the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Michael W. Sim & Company, P.C. at 4605 Pinecrest Office Park Dr. Suite E, Alexandria, VA 22312.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사용
- -Annandale 인근지역
-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 면 경험없어도Training 하여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40k-50k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 703-256-0606
- 탑여행사버스투어가이드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B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온라인세일 및 웹사이트관리자. MD소재식당장비 회사의 웹사이트관리 및 온라인세일관리도우실분.재택근무.파트 타임가능.자기소개,근무가능시간및 희망보수이메일로보재주세요. 571-332-2101(문자)

edk.tre@gmail.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 ■모집부문:그래픽디자이너/웹디자이너
- ■근무형태:Full Time
- (Mon.~Fri.: 7:30AM 5:00PM) ■근무지: 승원본사디자인실(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토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두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등등), 영주권스펀서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저희사무실과 동반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첸틀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타임(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풀타임직원모집 학생및유/무경험자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취업비자/영주권스폰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구함 www.visitlod.com

- -Quickbook/excel경험필수
- -1년이상회계업무경험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 -100% Medical/Dental/
-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소재한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 수어(ASL)통역메니저구함
- -통역사들의스케줄관리
- -정부계약및 vendor관리
- -좋은인성과성실함
-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세일즈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스패니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워싱턴총국에서'행정·코 디직'을채용합니다. 많은지원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총국행정, 취재코디및기타
- -지원자격:신입및경력
- 미국취업에 결격사유 없는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챈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 Recei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첨부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 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험자 우대) 저먼타운 MD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구함. -데이케어직원/주방보조/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240-477-5683

- -Part Time Office관리자
- -정육부관리자
- *Capitol Heights지역, MD
-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우대함
- -지원및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 *위치:메릴랜드재섭(Jessup)
- 1. 승원물류센터사무직원모집
- -업무:사무직원(서류관리 및인보이스등) -시간:주32~48시간(주5일근무가능)
- 2.승원물류센터 현장관리자모집
- -업무:현장직원관리및입출고관리
- -시간:주48~52시간
- -유경험자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 접수방법:간단한이력서작성이메일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에미)지역숙소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스프링 필드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되고싶은분들도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쉬어 구합니다. 443-864-0091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VA.MD 불체자에게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r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중앙일보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험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구함.(Woodbridge, VA) 월 \$6500+Tip(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이발소에서 금,토 요일일하실분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스킨 케어룸 원하시는분구함. 자세한사항은문자,메세지다가능 (571)215-6767

이발사구합니다.알렉산드리아지역 703-408-1119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구함. 자세한사항은문자,메세지다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280+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타임 구함. 애난데일지역 703-505-9020

풀/파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앤드류공군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바느질하실분(파타임)/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하실분구함. 알렉산드리아지역 703-328-3064

픽업풀타임카운터구함.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구함! ▶240-246-4477

자동차메케닉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정비소에서 일하실 분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가능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Glimck2@gmail.com

wages, we will split 50% each.

Office 청소하실 분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성악전공/지휘전공

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조건의연봉과베네핏

-유급휴일과유급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미용학과코디네이터/강사

자격:라이센스보유J-1(교환교수,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에어콘 저렴하게 판대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기술자,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페인트, 스테인)

-카펜터(캐비넷,코리안카운터탑제작) -프로젝메니져(이중언어) 높은페이와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베네펫,전기기술자,무경험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구인/구직〉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 - 금. 오후 3 PM - 7 PM 센터빌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워싱턴델러스공항라운지에서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일하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51-8861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톤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 (지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할곳: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경험자우대.숙식도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구합니다.유,무경험자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파타임구함. 이중언어되시는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교사모집 토들러반풀타임/오후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인쇄회사풀/파타임구함. 컴퓨터관리/고객마케팅관리하실분. 신분무. 재택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위치 •시설 -최고의식사와돌봄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유•무경험자 703-499-0857

703-980-9890

건물관리인(월-토),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페어팩스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새나무마루,새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환한집. 880S.F.(넓은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각자풀키친과세탁장

-12베드룸, 6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화2,유포(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화장실2,주인잔디관리,전체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문자요망)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지하철 근방.(교통/학군좋은) 방2,화1,세탁기,새부엌,렌트or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타운홈(차고두개짜리) 사고저하는 분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로케이션, 잘관리된집\$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새페인트와바닥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센터빌싱글홈\$2,600/mo 가라지방4화3.쇼핑몰,교통편리 2. 페어펙스타운홈 \$3,000. 방3화3 차고. 페어레이크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센터빌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부엌,넓은리빙룸,H-Mart,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콘도, 방1,화1,새나무마루, 새부엌,새화장실,새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또는 직장여성 욕실별도/세탁기월\$640(유포) 대답업으면 메시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홀푸드근처. 1180 sq/2bed/2bath 3&4층복층콘도.좋은학군 전체새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화2,깨끗한이층집.\$1,700 702-622-8853

〈방렌트〉

TTA 애난데일콘도방1, 주방/욕실/지정주 차가, 세탁기/냉장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심신이 편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I-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근교 단독주택

2.3에이커, Rambler,

Ground Level. No HOA



2004년도





\$526,000 55+ 시니어 주택 2024년도 신축, 방2, 화2, 차고1, 방3, 화3, 차고1, 2000스퀘어, HOA (\$150)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당해 드립니다!

66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무료게재,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애난데일지역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샤워,유틸리티포함.출퇴근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센터빌콘도, 방2, 화지실2, 2층, Loft애난데 일도서관서동쪽 0.7마일콘도방1,

취사가, 월\$840(유포),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6pm 이후)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출입문별도. 지하방2부엌거실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아난데일 K마트뒤 싱글홈 방 하나, 주차 넉넉 703-965-2343

단독주택센터빌CVS 근처 인터넷, 윗층큰방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홈디포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따로 571-237-3411

애넌데일, 노바근처, 방1, 화장실1, 침대,책 상, 초고속인터넷, 냉장고,출입문별도. 조용하고 깨끗한싱글홈.즉시입주가능. 703-772-7680(문자요망)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취사가능,유포\$700, 직장다니는 남/녀,즉시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 바람 571-214-0188

Woodstock, MD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유틸리티 포함(전기, 수도, 인터넷) 화장실/침대구비금연남성환영 443 -983 -1880 문자 주세요.

〈사무실/점포렌트〉

아난데일오피스렌트(쉐어)사용공간룸2개, 리셉션, 화상실, 무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 일 ,병원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활용가능.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싱글/타운/콘도 매매〉

에난데일 H mart 옆 콘도 매매 (owner) \$340,0000 방 2 화 2 세탁기 1218 SF. Condo fee \$390 703-350-1986

1.Coming Soon 애닌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경비제외한순렌트수입\$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생활여건좋아진 Manassas,

병원, 샤핑몰, 한국그로서리, 식당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3,화2.5,1car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중인진입로독점적위치, 상가개발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로럴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약 3000SQF)

▶ 703-244-3453

•원하시면건물매매도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랜트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 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에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매입/현장매입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1. 메릴랜드 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부부가능.좋은장점있음.

2. DC.리쿼 비지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크라운,별도:\$750 다양한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Seafood Carry Out 주매상:\$9,000 렌트: \$3,750주6일 MD Fort Washington 매매가: \$170.000 301-768-1240

우표, 동전 오랫동안 수집했던것 팔고자 합니다. 240-723-511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 예상문제/한국 · 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염가로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버크레이크쉘터/•시간:일아침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넘는깨끗하고넓은정원 ,노바대학과벨트웨이중간지점(예촌 2분거 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시니어) / 주1회90분수업

-기초반/중급반/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봉사하실분. 비용과서류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카톡ID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신선한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교회,식당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서류대행,심부름대행,퍼밋대행, 이민국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라이드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타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풀옵션절반싯가로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Calculus/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무빙세일 역 이민 관계로 가구 및 생활용품 을 정리합니다. 김치냉장고 딤채, 컴퓨터, 옷장.식탁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571-232-6071(문자요망)

〈건축/페인트/마루〉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욕실/전기설비,타일마루/루핑,카펫, 페인트/각종목수일일체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실용적인주방과욕실을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443-980-1167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덱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체계적인유지보수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자체라이센스보유,책임보험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라이센스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융자〉

▶703-591-0009 / 703-537-9899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냉동&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인터테크 냉난방

▶703-678-1749

▶202-774-6554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케리아웃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K18,K14,K10,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하드우드/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트럭파워스팀샴푸,살균,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수해복구및타일플로워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에어컨,냉동 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배송서비스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이사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택, 확실한만족,귀국이 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타주,시내이사,고품격포장.자체창고 보관서비스한국 화물 배송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등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229-4633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계단,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환영,무료견적, 철저한AS ▶703-929-9601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Window 상점,가정용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Door설치,MD/VA/DC지역 ▶703-346-5962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울타리라인,산책로 및목초지관리 ▶540-905-2849

>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중앙일보

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재가입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셜이 최고의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페인트

Since 1988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mark>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mark>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188

B B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죽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 두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덱, 마루, 캐비넷 샌딩 보수
- 플로밍. 핸디맨 써비스

703)965-3011

무엇인지 아시나요?

<mark>라돈 가스는 폐암</mark>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MD·VA·DC 지역, 신속시공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어 범앙에운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USA(ATLANTA)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703.339.8844

교려통운

www.HDmovingusa.com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20년 전문//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각종 집수리 일체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Golden Dew Jewelry

다이아몬드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443-980-1167

전기공사, 메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리모델링

703-582-7757

중앙일보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플러밍 / 카펫&크리닝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하드우드 / 타일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www.intertechhvac.com

.380.2282



(443) 850-3703 / (410) 979-4242

24 hours 7days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Lee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32년 전통의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mimovingllc@gmail.com

서념안 가격으도 최고의 만속글!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REPAIR 🐼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社会学生 서의적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mark>실내외 페인트 전문</mark>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 VA-MD-D.C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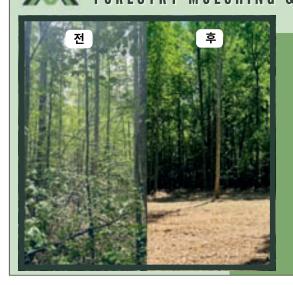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해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덤불,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융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Glen: Hi Ron. How are you? I haven't seen you for

Ron: You're more than that. I heard you're going

론: 그보다야더 좋겠지. 제니랑 사귄다면서.

글렌: 안녕론. 어떻게 지내? 한동안 못봤는데.

Ron: I've been very busy. How are you doing?

론: 아주 바빴어. 어떻게 지냈어?

글렌: 나쁘지 않아. 살아있으니까.

Glen: Not bad. I'm alive.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Glen: Where did you get that idea? 글렌: 어디서 그런 얘길 들었어?

Ron: Oh come on. The word is out. Everybody is talking about it.

론: 그러지 말고. 소문 다 퍼졌어. 모두들 그 얘 기야

Glen: Okay you're right. And I'm not bragging but she is as beautiful as she is intelligent.

글렌: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자랑하는 건 아니지 만 제니는 지적인만큼 아름답기도 해.

see (someone) around; 만나다, 보다, 마주치다

(Two friends meet in the gym \cdots) (친구둘이 운동관에서…)

Ron: Well I don't know what she sees in you. 론:참 제니가 자네 뭘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Glen: I don't either but she's someone you find once in a lifetime.

글렌: 나도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평생 한 번밖에 못 만나볼만한 그런 사람이야.

Ron: I'm sure I'll see both of you around more often now

론: 이제 두사람 함께 자주 보겠네.

기억할만한 표현

▶ go out with (one): ~와 사귀다 만나다 연애하다

"I'm not going out with anyone now."

(저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 the word is out: 소문이 퍼지다.

"The word is out about you failing the writing class." (네가 작문 수업에서 낙제했다고 모두 소문이 났어.) ▶ once in a lifetime: 정말 드물게 평생 한 번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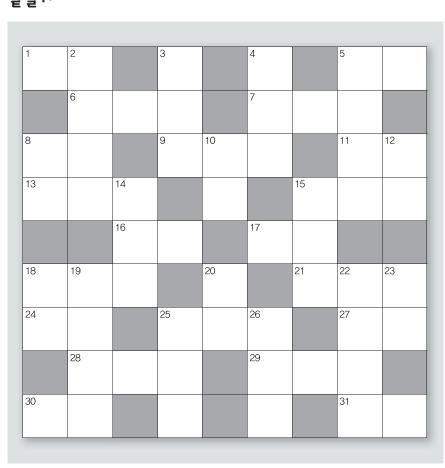
"A job like that comes along once in a lifetime."

(그런 직장은 평생 한 번이나 나옵니다.)

낟말퀴즈

out with Jenny.

a while,



롶	哻		坦		抋		\	小人
	_	Ho	昬		‡	원	ਲ	
늘	₽		ក	码	咖		小人	┤ Υ
lπ	₹	セ		FZ		叩	\	궄
) 전	40		ЗL	∠		
ŀγ	Y	÷		추		怀	中	연
문	49		문	÷	전		ъ	-
	상	곰	÷		F	릌	ᅙ	
롬	l으		0		ਨ 음		1 2	녆

가로열쇠

(1)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를 발원지로 하는 강 (5) 파충류, 곤충류가 자라면서 벗는 껍질 (6) 경 망스럽고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 ~을 떨다 (7)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8)술 을 마시며 즐겁게 노는 잔치 (9)용역 따위를 제 공하기로 하고 전체 금액의 일부를 먼저 받는 돈 (11)정성으로 내는 돈 (13)파도를 막기 위하여 쌓은 둑. 나는 떼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배에 서 내리자마자/~에 앉아/술을 마셨다/해삼 한 토막에/소주 두 잔/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이생진) (15)오물이 물에 씻겨 내려가게 처리하는 방식 (16)한글 자모 ㄱ의 이름 (17)친구 사이의 정 (18)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함부로 쓰는 짓. ~ 도 유분수지, 그 많은 돈을 며칠 만에 다 썼다 고? (21)지나치게 많이 써서 없애는 일 (24)백 수의 왕 (25)조선 영조 때에 각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던 정책 (27)배가 건너다니는 곳 (28) 뜻밖의 좋은 운수. □행□ (29) 해안, 항구 에서 떠도는 새 (30)수를 놓음. 전통 ~ (31)벌 어서 먹고살 수 있는 수단. ~이 끊어지다

세로열쇠

(2) 강이나 호수 위에 안개처럼 보얗게 이는 기 운이나 잔물결. 대자연의 풍경 (3)쇠로 겉을 싼 병선. 우리나라의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이다 (4) 받아야 하나 아직 못 받은 돈 (5) 실력이나 실 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부림, 그의 말에는 적잖 이 ~하는 구석이 있다 (8)음식을 만들거나 차 리는 곳 (10)손과 발. 손발처럼 마음대로 부리 는 사람 (12)한동안 음식을 먹지 않음 (14)못마 땅하여 불쾌할 때 욕으로 하는 말. ~, 되는 일 이 하나도 없어 (15)생강, 꿀, 계핏가루, 곶감, 잣이 들어가는 음료 (18)돼지를 가두어 키우는 곳 (19) 슬기로운 사람은 사리에 밝아 막힘이 없 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물과 친하여 물을 즐김 (20)건물이 차지하는 밑바닥의 넓이. 여러 층의 건물일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 한 평수를 말한다 (22)평소에는 조금밖에 먹지 않으면서 어쩌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밥 (23)주 로 개, 말, 나귀 따위의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 는 병 (25)고기 튀김에 달고 새큼하게 끓인 녹 말 채소 소스를 끼얹은 중국요리 (26)책장과 책 장의 사이

스도쿠

4		3		5		7	6	
		5	4		7	2		
9				2		4		
			6	1			8	
	7		8					1
	3			9				
		6		7	1			
			9	3		1		
7		1					2	4

٦,	~	-	-	6	a
- 1	1			1	
- 1	•		÷		
- 1			۰	9	
-1	L			1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Þ	S	3	9	8	S	ı	6	L
9	L	ı	Þ	3	6	S	8	S
6	S	8	L	7	2	9	Þ	3
7	Þ	9	S	6	L	8	ε	ı
ı	ε	S	S	Þ	8	6	L	9
7	8	6	3	L	9	Þ	S	S
S	ı	Þ	8	Z	ε	L	9	6
ε	6	z	L	9	Þ	s	ı	8
8	9	L	6	S	ı	ε	7	Þ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위싱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66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위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Home	
(Phone #)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Card 🗌 Daily
Card Info	카드종류 VISA Master Amex Discovery EXP. DATE: / month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I타 지역

매매

구인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 > 중앙일보

쿡/쿡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숙식제공 알라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주방장

숙식제공.죠지아주지역 (646)229-2708



문의 213.368.2525

(1)

한국제품이 많은~ Hotdeal.Koreadailv.com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 메이져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윤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날 낙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40% 30년 1파운드 \$750 ⇒\$550 40년 1파운드(\$1,500→\$950 50년 1파운드(\$2,350→\$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0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편안하고 행복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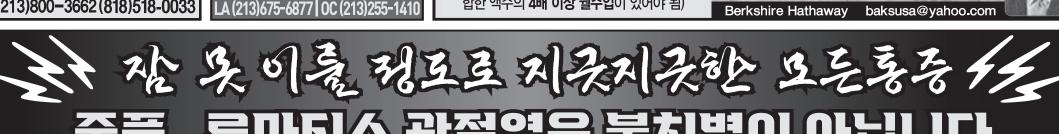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휘노씨]

2개월 치료받고 "이겐 웃을 수 있어요"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병원

Tel. 213 385.3304 Cell. 213 503 3304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죠스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상담 문의 E-Mail: info.tpk@jawsfood.com

B. 미국 매장 현황

- 1. The source Mall (CA)
-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 7. Tampa Lotte Mart (FL)
-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C.P: 714-715-5595

JAWS Espakki

2. LA K-Town (CA)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솥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기간목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미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미료보험

业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 허리 디스크

-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